

총학생회 후보 '어시스트' 정책설명회서 공약 밝혀

지난달 26일 2022학년도 제 35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어시스트'의 정책설명회가 열렸다. 선본 '어시스트'의 정 후보는 송호찬(공과대학·4) 학우, 부후보는 유민우(IT융합대학·4) 학우로, 새로운 총학 '어시스트'가 제시한 공약은 크게 ▲시설 ▲교육 ▲복지 ▲문화 ▲소통 ▲언택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총학 후보는 먼저 시설 공약으로 '학생문화 공간 조성'을 내세웠다. 동아리실, 연습실, 회의실이 없어 불편함을 느꼈을 학우들을 위해 교내 모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밝고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가로등, CCTV, LED 등의 설치를 공약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차세대 종합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교내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암암리에 이뤄지는 강의 거래 행위를 막고자 수강 신청 여석 확대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복지 분야는 시험 기간 광주 시내버스 운행 시간 연장, 의료공제비를 기존 13,000원에서 9,000원으로 30% 인하, 기숙사 공용시설 관리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문화 분야에서는 빚고을 보은제 부활, 캠퍼스에서 함께 국가대표 경기 관람, 국토대장정 기획 등이 공약으로 등장했다.

소통 분야는 총학생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동내역, 공약 이행, QnA 등 학우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겠다고



▲지난달 26일 경상대학교 이주현관 진행된 정책설명회 모습

밝혔다. 또한 총학생회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불편사항 및 건의 사항을 받을 계획이라는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중 소통 분야

를 강조했던 총학 후보 측은 "학우들의 불편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 총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아닌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직접 다

가 가서 대면하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택트 분야에서는 자기 개발과 스펙 쌓기를 위한 총학생회 온라인 공모전 개최와 생활용품 지원 및 온라인 이벤트인 총학생회 '집콕!'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외의 공약으로는 ▲조선대 후문 장미상인회 전체 10% 제휴 할인 ▲총학생회 네임 데이 ▲교내 환풍기 점검 ▲교내 노후시설 보수 ▲자격증 제휴 업체 확보 ▲총학생회 E-SPORTS 대회 개최 ▲취업 박람회 개최 ▲자기계발 온라인 강좌 확대 ▲총학생회 주간 행사 스태프 참여 시 문화 마일리지 제공 등을 소개했다.

정성아 기자

jjvory9956@naver.com

내년부터 전남대와 공동 교과목 운영

우리 대학과 전남대는 지난달 15일 공동 교과목 운영 및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대학과 전남대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점교류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공동 개설 교양 교과목으로는 ▲우장 속의 세계시민(전남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위은하 교수, 정경희 강사) ▲토론과 민주 지성(전남대 인문학연구원 류도향 교

수) ▲공감의 시대와 반려동물(우리 대학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장은영, 이영란 교수) ▲색채, 문화 그리고 상상력(우리 대학 미술체육대학 디자인공학과 한지에 교수)이다. 이를 통해 양 대학은 대학 간 장벽 해소 및 폭넓은 교양 교과목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교육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민영돈 총장은 "교양 교과목 공동 운영을 통해 양 대학이 함께 교류·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

과도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공동 교과목 운영의 좋은 사례이자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전남대와 조선대가 힘을 모으고 그 시작점으로 공동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게 돼 기쁘다"며 "특성화된 교양 교과목 운영을 계기로, 보다 폭넓은 분야로까지 교류 협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민주 수습기자

miinjoo01@naver.com

'33회 조대문화상' 시상, 3명 수상

이달 1일, 우리 대학 학생회관에서 제 33대 조대문화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 조대문화상은 ▲시 부문 ▲단편 소설 부문 ▲수필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 부문에서는 이하루(문예창작학과·4) 학우가, 단편 소설 부문에서는 홍지형(문예창작학과·3) 학우가, 수필 부문에서는 김강(문예창작학과·2) 학우가 각각 선정



▲우리 대학 학생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조대문화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됐다.

소설 부문 심사를 맡은 장은영

교수(기초교육대, 문학평론가)는 "작가는 자부심과 부담감이라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며 수상자를 격려했다. 올해부터 조대문화상은 수상자에 대한 저작권이 조대신문에 귀속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김성우 기자

seongwoo55921@chosun.kr

'장미의거리' 상권 활성화! '로즈서포터즈' 수료식



▲회의를 진행하는 로즈서포터즈

지난달 26일 우리 대학 학우들로 구성된 '로즈서포터즈'가 약 5개월의 활동을 끝으로 수료식을 가졌다.

로즈서포터즈는 우리 대학 장미의거리에서 이름을 따와 조대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서포터즈다. 로즈서포터즈는 19명이 4팀을 구성해 4개의 구역으로 나눈 조대상권을 각각 담당한다. 이들은 음식점과 매칭해 홍보 활동 및 사장님들도 고객 눈높이에서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제

로 로즈서포터즈 3팀은 '장미맨션'이라는 음식점과 이벤트를 진행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로즈서포터즈 3팀은 "이번 활동을 통해 조대상권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애정도 생긴 것 같다"라며 "앞으로 조대상권도 많이 활성화되고 로즈서포터즈도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박보경 수습기자

ppboo@naver.com

우리 대학 양성평등센터, 알고 계셨나요?

젠더갈등과 성 인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 대학 양성평등센터에 방문해 양성평등센터 상담자 7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양성평등센터는 우리 대학 전 구성원들에게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및 사건 처리 ▲성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캠페인과 집단상담 등을 운영한다. 현재 우리 대학 학우들을 비롯해 교수, 연구원 등 교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양성평등센터를 찾고 있다.

양성평등센터는 성 피해 신고 접수 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공간 분리 조치를 담당하고 교내 성폭력·희롱 가해자에게 제적과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양성평등센터는 이달과 겨울 방학 시즌 계획에 대해서 이달

마지막 주에는 집단상담을 진행하며 이달 말일까지는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 약 900명이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내년 1월~2월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상담자 7씨는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일 때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부서가 분명히 있다”고 전하면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대학 졸업생으로서 캠퍼스 내 혐오와 차별이 사라져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사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우리 대학 교직원분들이 많으니, 궁금한 게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센터로 전



▲ 우리 대학 양성평등센터 홈페이지의 모습이다.

화해 주시면 좋겠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우리 대학에는 곧 인권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인권센터 설립 이후 양성평등센터는 인권센터 소속 부서가 된다.

박영진 수습기자
youngjinqueen123@gmail.com

대학
신문

우리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 평가 'A등급'

내년 이후에도 사업 연장한다

우리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자율혁신을 통한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센터 측은 해당 사업의 지원 절차를 묻는 말에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학사제도 마련,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재정 확보, 4차 혁명 시대 교육과 연구 인프라 확충 등 대내외 환경의 핵심 이슈를 파악해 해당 사업의 취지가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화된 사회가 도래하며 대학교육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대

학 소재지인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정책, 경제, 사회, 기술 환경을 분석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 대학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 연차평가에 이어 2차 연차평가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연차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대학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특성화 전략과 혁신지원사업을 적절하게 기획·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진한 사업 실적으로는 ▲학문적 특성화 연계 프로그램 ▲교과·비교과 연계 프로젝트 ▲학생 정신건강 진단시스템 활용 ▲교육-학습 여건 개선 프로그램 등이

우수 실적으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자율성과지표의 달성 정도 ▲사업 관리 및 개선 노력의 적절성 ▲자체평가를 실제 반영한 대표적인 혁신사례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팀 7팀원은 해당 평가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각 혁신 분야 및 사업 분야에서 주어진 목표를 꾸준히 달성해나간 것이 평가에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돼 내년 이후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김성하 수습기자
seongha1bb@naver.com

뿌리스마트융합특성화 인력양성사업단, 한국산업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우리 대학 뿌리스마트융합특성화 인력양성사업단, 한국산업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달 10일 우리 대학 뿌리스마트융합특성화 인력양성사업단과 사단법인 대한용접·접합공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가 '광주 뿌리산업 스마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우리 대학 용접·접합과학공학과 방희선 교수, 대한용접·접합공업협회 방한서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황상현 본부장 및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무협약 세부 내용으로는 ▲용접 기술 교류 및 인적 교류 ▲지역 우수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공동 노력 및 취업연계 ▲연구개발사업

공동 참여 및 기술 전수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용접·접합/금형설계, 공정개발, 시험평가 관련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을 위해 서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용접공학과 방희선 교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 대학에서 양성한 뿌리기술 스마트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들을 수요기업과 매칭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하며 “향후 광주지역 뿌리산업 기업체의 발전과 더불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한빛 수습기자
pencil@chosun.kr

대학
신문


 제보 및 문의 : chnews21@hanmail.net
 ☎ 230-6162

제34대 총학생회 '정' 총학생회 공약 이행 점검

공약 21개중 33.3% 이행 완료

제34대 총학생회 '정'(이하 총학)은 비상 대책위 체제로 운영된 제34대 총학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진행된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정'이 되겠다던 학생회는 과연 '정'의 길로 나아갔을까. 총학의 임기가 한 달을 남겨둔 시점에서 그들의 공약 이행률을 최종 점검했다.

지난 5월 총학이 내건 공약을 21개로 정리했다. 조대신문이 취재한 결과, 총학이 내세운 공약 중 이행이 완료된 것의 비율은 33.3%로 정리됐다. 이행 중인 공약과 이행 예정인 공약은 각각 19%, 이행 불투명한 공약과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각각 14.2%로 집계됐다.

불투명했던 분야 '코로나 알림 대책'

'정'은 출마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우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나섰다.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에서 항상 들려오는 불만이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학우들에게 제대로 문자조차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학생회는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코로나 대책 본부와 소통했지만, 전 학우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호소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단기간만 사용하는 것을 바라보고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단과대학 내에만 웹 발신 형식으로 진행을 했다.

현재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정부성 총학생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져 교외에서 걸린 분들이 교내에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그 경우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만 공지하고 단과대학이 폐쇄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범유행에도 이행 완료한 분야 '문화'

문화 분야 공약은 코로나19라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행했다. ▲SNS 사진 방탈출 ▲조선대학교 온라인 가요제 개최 ▲'정'다운 체육대회 ▲E-sports 대회 개최 ▲'ONLY TWENTY 라떼는 그랬지'를 이행한 것에 대해 총학은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홍보를 했어야 했고, 시간을 넉넉히 잡았으면 좋을 것 같다며 아쉬운 점도 드러냈다.

또한 'ONLY TWENTY 라떼는 그랬지' 행사와 같은 경우는 상상유니브와 계약을 맺어 도전 골든벨 등의 게임을 준비해 진행했지만 그보다 더 큰 행사를 진행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진행할 수 없던 점을 안타까워했다.

사실상 이행 불가 '국가공인시험 지원비 제공'

총학은 취업 대표 공약으로 ▲취업 박람회 개최 ▲국가공인시험 지원비 제공을 내세웠다. 총학은 정책설명회 당시 일자리취업센터와 함께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람회를 개최하려는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일자리취업센터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의견 충돌이 잦아지고 학우들에게 보다 더 좋은 박람회를 만들어주고자 했던 총학의 기획이 틀어졌다. 센터의 기획이 우리 대학 학우들, 총학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단과대 별로 취업자를 선정해 우리 대학 학우들과 취업 멘토링을 진행했고 학우들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공약인 '국가공인시험 지원비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이었다. 정부성 총학생회장은 "보편적 복지라고 모두에게 기회를 줘버린다면 예산이 감당 안 될뿐더러 다른 행사조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며 "선착순으로 하면 기회를 못 가진 학생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현재 워드코로나가 진행된 가운데 많은 행사가 시작되고, 후에 진행해야 할 행사 또한 기획되기에 예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남은 돈을 이 공약에 써버린다면 다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지수가 되기에 복지팀에 재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학은 "이러한 결함이 있을 때마다 학우들에게 다른 행사로 찾아뵙겠다고 말한다"며 학우들에게 송구함을 드러냈다.

계속 노력중인 장미의거리 상인회와의 제휴

현재 우리 대학 후문의 식당이나 술집에서 많은 곳이 우리 대학과 제휴를 맺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각 단과대 학생증을 보여주면 5% 할인이 가능한 상태다. 또는 먹을거리를 서비스로 주는 등 많은 곳에서 제휴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다. 내년에는 굳이 단과대별로 나누지 않고 우리 대학 학우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영광, 담양 등 타지에도 제휴를 확대하려 계획 중이라고 한다.

또한, 대다수의 음식점이 5%에서 10%로 제휴 할인을 올리는 데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다른 대학 거리처럼 상인회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총학은 "조대후문은 장미의거리이기에 흥대거리처럼 특색 있게 발전시켜 보자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행 불가능한 '자취물품 공동구매', '자취생을 부탁해'

많은 학우들이 우리 대학 주변 원룸촌에 거주한다. 총학은 이러한 학우들을 배려해 더 싼 가격으로 자취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대면 수업이 늦게 시작되고 기숙사생들이 많은 물품들을 제공받아 이행하지 않기로 결

◇ '정'총학생회 공약 이행 최종 점검

※2021년 11월 29일 기준

이행 여부	공약 명칭	개수
이행 완료 (33.3%)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sns 사진 방탈출 조선대학교 온라인 가요제 개최 '정'다운 체육대회 E-sports 대회 개최 ONLY TWENTY 라떼는 그랬지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박람회 개최 '그 외의 공약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제휴업체 	7
이행 중 (19%)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약이행률 보고 학생 소리함 '그 외의 공약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카메라 점검 총학 택시 	4
이행 예정 (19%)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 CCTV 확대 '이 외의 공약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야식 행사 지역 소외계층 돕기 Diet 프로젝트 	4
이행 불투명 (14.2%)	'코로나 알림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캉스 여행지원 '이 외의 공약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숨은 명소 찾기 	3
이행 불가능 (14.2%)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취생을 부탁해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공인시험 지원비 제공 '이 외의 공약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취물품 공동구매 	3

정했다.

또한 '자취생을 부탁해'라는 이름으로 총학이트를 기획했지만, 이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적절치 않아 동구 주민들에게 물품을 나눠주는 행사로 바뀌 진행할 예정에 있다.

학우들과 총학이 불편한 사이가 돼서는 안 된다. 학우들이 있어야 총학이 있으며 총학은 그들을 위해 행사를 기획하고 또 노력한다. 그런데 공약의 3분의 1 정도가 이행 불투명 또는 이행 불가능 상태였다.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범유행으로 인해 전 대

학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총학이 공약 이행에 성급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정'은 업무 능력으로써 학우들에게 다가 가려 노력했다고 평가된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공약 이행률을 점검하며 우리 대학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앞으로 총학을 향한 학내 구성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몇 개의 공약을 내걸었는지가 아니라 몇 개의 공약을 실천했는지를 봐야 한다.

김성우 기자 seongwoo55921@chosun.kr

단계적 일상회복, 변화의 이야기

11월부터 시행된 위드코로나. 방역 제한이 완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 방역 수칙이 풀리며 일상에는 조금씩 활기가 생겼지만, 내부에는 아직 고쳐야 할 점들이 많다. 조대신문 기자들이 모여 일상 회복의 현주소를 담았다.

위드코로나에 맞춰 돌아오는 축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다양한 축제들이 재개됐다. 지난달 18일부터 21일, 충장로의 대표적인 축제인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힐링 YES 충장축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준수해 사전 예약자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5·18민주광장 등 동구 일원에서 펼쳐졌다.

충장축제 외에도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무등올림픽축제'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쳤다.

모처럼 열린 축제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거리에서 충장축제를 진행하는 모습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며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박보경 수습기자 ppboo@naver.com

신시부

전면등교 전환 이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급증

지난달 22일부터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했다. 2년여 만에 전면등교가 이뤄졌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면등교 이후 일주일간 전국 유·초·중·고 학생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14.4명에 이르렀다.

일주일 동안 학생 확진자의 하루 평균 수가 400명대를 돌파한 것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이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비상계획이 발동돼도 전면등교 방침은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며 "12~17세 청소년 백신 접종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등교 전환 이후 초등학교 학급의 모습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우 수습기자 8021cw@naver.com

신시부

단계적 일상회복, 아직 의료계 반응은 차갑다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에서 관건은 의료계와의 소통인데, 늘어나는 확진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 대응 방향을 개편했다. 환자의 증상을 고려해 중증도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에게는 재택치료를 확대해 병상을 확보하는 것, 중등증·중증 환자는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정부는 병상 확충에 대해 목표 병상을 모두 확충하면 하루 6~7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하루 1만 명 환자도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대응 방침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작해 확대 예정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의료인 노조는 정부의 해당 조치에 대해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것 이외에 의료 인력 충원과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한 법제화를 주장하며 요구가 결렬될 시 파업을 예고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서울 종로구 의료연대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의료 노조원들의 총파업과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서울대병원과 울산대병원 등 세 곳은 파업 쟁의권을, 경북대병원 등 여섯 곳은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 인력난에 대해 노조 측과 합의점을 찾겠다고 설명한 가운데, 의료계와의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성하 수습기자 seongha1bb@naver.com

매거진

이달의 포토



▲화재가 발생한 현장 사진

우리 대학 후문서 화재...사상자는 없어

지난달 30일 오후 20시 06분쯤 장미의 거리 상점가 2층(우리 대학 후문)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에 나섰다. 일반 가정집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김성우 기자 seongwoo55921@chosun.kr

택시 운전사 급감, 심야 택시 잡기 하늘의 별따기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법인 택시 기사의 수가 급감한 가운데,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택시 사용 수요가 늘자 여러 도시가 택시 공급난에 빠졌다. 사납금에 대한 부담감과 심야시간대 탑승자 감소로 법인 택시 기사들이 급감한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법인 택시 기사의 상당수가 개인택시 면허를 따거나 비교적 임금이 높은 대리기사나 배달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수요가 큰 지역과 시간대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 택시 요금 개선과 정부의 통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서울시와 부천시는 일시적



▲심야 시간대 택시를 잡고있는 사람의 모습

으로 각각 3부제와 4부제 해제로 택시 대란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박영진 수습기자 youngjinqueen123@gmail.com

매거진

조대신문 www.chosun.ac.kr/chnews 1954년 9월 15일 창간
민족대학 건설에 이바지 / 대학언론 창달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발행인_ 총장 민영돈 / 편집인 겸 주간_ 신형철

편집국장_ 김성우 / 인쇄인_ 박만수

주소_ 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편집실_ 062-230-6162 / FAX_ 062-234-3014 / 행정실_ 062-230-6166

! 알가알부 !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이대로 괜찮은가?

현재 막대한 자본·인력·생산력을 모두 갖춘 대기업들이 여러 산업 분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 이런 대기업의 성장 속도와 과급력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향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 조대신문 기자들이 이야기 나눴다.

김청우 수습기자 0821cw@naver.com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문제도 해결될 것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문제를 논하기 전에 그들이 흥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자.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카카오펙 등 카카오톡이라는 명칭을 붙인 서비스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이 우리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카카오톡은 택시 정보, 현 위치, 도착 예정 시간을 본인이 설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안심 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적지를 물어보며 손님을 골라 태우는 승차 거부 문제 등을 보완하면서 등장했다. 나 또한 안심 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이용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요

구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카카오톡이 금지된다면 카카오톡의 택시 독점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과연 기존 택시 업계의 문제도 해결될까?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저지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독점 논란에 편승해 혁신적인 시도를 무차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묻는 일이다.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서비스를 수용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해결해야 독점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민주 수습기자 miinjuu01@naver.com

공룡 플랫폼 규제 법률로 대기업 횡포 잡아야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소수 대기업에 좌지우지되고 경제 양극화 또한 극심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수요의 급등에 따라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우리도 현재 대기업의 쪼개기 대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편리함 속에 감춰져 있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크게 성장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자의 고용불안 해소, 플랫폼의 독과점 및 공정경제 문제, 플랫폼 및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피해 예상 업종 지원 정책 및 예산 일체 등의 문제를 규제할 만한 마땅한 정책도 나오지 않고 법도 미비한 수준이다. 국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기업에 몰아줬던 정책 지원을 중소기업 쪽으로 돌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필요가 있다.

김성하 수습기자 seongha1bb@naver.com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업 독점이 당장의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으로 마냥 긍정적이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독과점의 그림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 잠식을 위한 특정 기업의 불법적인 행보까지도 포함한다. 나아가 이들에 의해 경쟁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 결국 소비자의 시장 선택권도 줄어든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 및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플랫폼 산업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5개의 반독점법을 발의했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 기업과 시장 균형에 문제를 일으키는 독점 행위들을 불법으로 정의한 것이다. 물론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국내 플랫폼

산업들이 완전한 독점 체제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등장했고 일부 기업의 입지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거래소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4% 가량이 성장했으며 플랫폼 사업에 경쟁 기업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런 성장세가 코로나가 끝나면 멈출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들은 자사의 몫집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인데 시장의 균형이 서로의 경쟁을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맞춰지기는 힘들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가 공정거래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독점 판매를 예방하고 독과점 문제를 제한할 법안 발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청우의 **슬기로운 탐구생활**

우리가 몰랐던 크리스마스 속 숨은 이야기



도서 <숨은그림찾기: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 풍경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왔다. 연말이 기대되는 이유엔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럴, 밤하늘을 수놓은 불빛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리스마스 속 숨은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자.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구원자를 뜻하는 Christ와 파견을 뜻하는 mass의 합성어다. 크리스마스엔 다른 공휴일과는 다르게 하루 전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이브가 있는데 크리스마스이브가 생겨난 배경을 알기 위해선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시작한 4세기경 하루의 기준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였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24일 저녁부터 25일 저녁까지였고 현대에 와서 크리스마스이브가 생겨나게 됐다.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 양말을 걸어 놓는 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이 풍습은 산타클로스의 실제 모델이라 알려진 성 니콜라스가 가난한 집의 굴뚝으로 금이 든 주머니를 떨어뜨렸는데 그 주머니가 벽에 걸려 둔 양말에 들어간 것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양말을 걸어놓게 됐다.

크리스마스 속 숨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날을 기념한다면 더욱 특별한 하루가 되리라 생각한다.

김청우 수습기자
0821cw@naver.com



박영진의 **생세지락(生世之樂)**

쓰레기도 줍고 포인트도 받자!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 중인 그린포인트제도는 국립공원 내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 포인트를 받고 그 포인트로 공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상품으로 교환하게 하는 문화운동이다.

그린포인트 적립 방법은 국립공원 내 쓰레기를 모아 무게를 재 현장 적립을 하거나 산행정보 앱을 활용하여 적립하면 된다. 현장적립 시 쓰레기 1g은 2포인트 즉, 2원이며 산행정보 앱 활용 시에는 700포인트 즉, 700원이 적립된다.

1인 1일 최대적립량은 2,000포인트이며 쓰레기는 일반, 재활용 쓰레기 구분 없이 통합 적용된다. 쓰레기봉투 사진은 공원에서 수거한 쓰레기봉투 사진과 집으로 가



▲국립공원에서 시행중인 그린포인트 홈페이지의 모습이다.

저간 사진 2장을 전송해야 한다.

그린포인트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장 먼저 그린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포인트를 조회한다. 그다음 상품 또는 공원 시설을 선택하고 온라인 쇼핑물, 예약관리시스템 및 공원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은 24개월이다.

박영진 수습기자
youngjinqueen123@gmail.com

연기근 기자

단순 소비자에서 제작, 기획, 홍보까지 도맡는 팬들

시대에 맞춰 변화를 맞이한 요즘 아이돌 팬 문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됐던 콘서트가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아이돌 팬 문화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변화가 이뤄졌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 나오는 장면처럼 아이돌 그룹 H.O.T와 젝스키스 등 1세대 아이돌이 인기를 누리던 시절에는 각 팬덤의 고유색을 지정해 풍선, 우비 등의 굿즈로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아이돌을 응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좋아하는 아이돌의 집, 연습실 등을 찾아가는 일명 '사생팬'이라고 불리는 팬들도 많았던 시절이다. 경쟁 그룹 팬덤끼리의 다툼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때여서 그런지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이 발달하자 앨범과 굿즈 등을 모아 방을 꾸미는 것이 그치지 않고 SNS에 업로드하는 문화가 생겨났다.

2세대 아이돌로 들어서면서부터는 고유의 색과 응원봉이 생겨났으며 인터넷이 발달해 팬들끼리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아이돌 영상 및 사진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유튜브, 트위터 등 각종 SNS를 이용해 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정 아이돌 팬덤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옛날 팬 문화를 벗어나서 여러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진 3세대를 지나 현재 4세대 아이돌의 등장을 앞둔 상황까지 팬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굿즈, 이벤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맞이하며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덕후'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치던 시절을 지나 어느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팬 문화는 어떻게 변했을까

과거 팬 문화를 대표했던 CD, 응원봉 등의 굿즈 구입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및 물품 구입 등의 형식으로서 '소비자'로서의 팬이라는 문화로 한정된 것이었다면 현재 팬들은 팬아트와 같은 창작물 제작, 전광판을 비롯한 다양한 광고 제작, 생일 카페, 기부 등 아이돌에게 도움이 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직접 기획 및 참여하고 있다.

이제 팬들은 소비자의 역할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작, 기획, 홍보 등 아이돌과 상호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생일이나 데뷔일 등의 기념일에는 버스, 지하철 등에 있는 전광판에 광고하거나 편의점, 꽃집, 카페 등에서 굿즈 나눔 이벤트를 열어 아이돌을 알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좋아하는 아이돌이 같다는 이유로 커뮤니티에서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면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하기도 한다. 단순히 아이돌과 팬으로서 해야 할 역할 뿐만 아니라 팬들끼리의 소통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아이돌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기부나 봉사를 하는 팬들을 보고 반대로 팬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아이돌이 생겨나기도 하며 아이돌과 팬들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 예전에는 소속사에서 판매하는 굿즈를 샀더라면 요즘은 팬들이 직접 굿즈나 팬아트와 같은 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개인 채널을 운영해 아이돌 뮤직비디오 리액션, 앨범 리뷰, 굿즈 리뷰 등의 게시물을 만들어 아이돌을 알리기 위해 직접 활동하는 팬들도 많아졌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일상생활을 했던 때를 지나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덕질'(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해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속사와 팬 문화의 상관관계

팬과 소속사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에 팬 문화는 소속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SNS에서 아이돌의 뮤직비디오, 영상 등의 리액션이나 굿즈 리뷰 등을 활발히 하는 팬들 덕분에 아이돌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에 소속사 측에서 먼저 굿즈를 협찬해 리뷰 영상 및 블로그 포스팅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또 아이돌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및 멤버들이 자주 찾는 단골집 등 아이돌의 발자취를 따라 투어 형식으로 돌아다니는 일명 '덕후 투어'가 인기를 끌자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 측은 자체 콘텐츠인 '인더숲 BTS편 시즌2'가 촬영됐던 평창 촬영지 투어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변화하는 팬 문화에 맞춰 소속사가 팬들과 상호작용 하는 경우가 많아진 가운데, 반대로 소속사가 추진하는 계획으로 팬 문화가 변화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유니버스, 버블, 위버스 등 소속사와 기업이 합작해 만들어진 팬덤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아이돌의 영상 및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기존에 있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아이돌과 소통하던 팬들은 팬덤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우리 대학 후문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방탄소년단 지원 생일 카페의 모습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JYP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 등의 엔터테인먼트에서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해 저마다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니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인 NFT기업과 합작해 디지털 포토카드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혀 그간 앨범에 들어 있는 포토카드를 모으고 교환하던 팬 문화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돌이 음악, 문화, 교육, 뷰티 등 폭넓은 분야로 진출한 만큼 팬 문화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늘어나자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팬 사인회 등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됐던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메타버스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아이돌 산업에서도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의 팬 문화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듯이 앞으로도 팬 문화는 꾸준히 변화할 것이다. 현재 성숙한 팬 문화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한편에서 여전히 잘못된 팬 문화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저작권 침해, 성범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팬들뿐만 아니라 소속사, 아이돌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상이 기자

jivory9956@naver.com

교수칼럼

연대와 공감이라는 ‘사회 백신’

1768년 겨울 어느 날 밤이었다. 눈은 쌓이고 달빛은 어스름 희미했다. 박제가(1750~1805)는 생각했다. ‘이런 날 벗을 찾지 않으면 또 언제 벗을 찾겠는가’ 그는 돈 10전을 움켜쥐고, 가슴엔 ‘이소경(離騷經)’을 품은 뒤, 원각사 탑 북쪽에 있는 유금(柳琴, 1741~1788)의 집을 찾아간다. 유금은 반가운 친구 박제가를 맞아 해금을 탄다. 어둠은 그렇게 깊어가고 눈은 소리없이 뜰에 가득 쌓인다. 흥이 다하지 않았는지 박제는 시 한 수를 지어 유금에게 제안을 한다.

“울적엔 달빛이 희미했었는데 술 마시다 보니 눈이 깊이도 쌓였네. 이때 친구가 곁에 있지 않으면 장차 무엇으로 견딜 것인가. 내게는 즐겨 읽던 이소가 있고 그대는 해금을 안고 있으니야심한 밤 문을 나서 이덕무를 찾아가세.” -박제가 <정유각집>

유금의 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잔을 기울이며 해금 연주에 취해있던 박제가

가 문득 이덕무가 보고 싶어진 것이다. 그래서 유금에게 시 한 수를 건넨 것이다. ‘그대는 해금을 안고 밤 문을 나서겠나? 우리 이덕무에게 가세나’

한 폭의 그림이, 소담한 흰 눈을 잔뜩 묻혀 우리 앞으로 걸어온 듯하다. 유금은 이날의 광경을 이렇게 그려낸다.

손님은 ‘이소경’을 품에 지니고 / 눈 오는 한밤중에 나를 찾았네 / 불평한 그대 마음 나는 아노니 / 광릉산(廣陵散) 한 곡조를 연주하노라. - 박제가<정유각집>

18세기를 살았던 이덕무, 박제가, 유금. 세 사람은 모두 서자 출신이었다. 그들의 학문적 역량과 문인으로서의 출중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조선은 불모지, 기회가 없는 땅이었다. 그들의 심경은 초나라 회왕에 충성하다 간신들의 모함을 받고 쫓겨난 굴원의 작품 ‘이소경’이 대변한다.

손에 10전을 쥐고 유금을 찾은 박제가. 10전은 아마도 막걸리값이었을 것이다. 세상에 대한 불우한 심회와 쓸쓸함이 친구를 찾게 했고, 이심전심, 그 ‘불평한 마음’을 알아차린 유금은 ‘광릉산’이라는 곡조의 거문고를 연주하며,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은 그들의 심정을 보듬어 주었던 것이다. 그 만남 속에는 시가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또 사람에 대한 귀함이 있었다. 물론 세상에 대한 쓸쓸함도 있었을 것이다. 18세기 조선 사회 변혁의 복판에서 있었던 그들. 그들이 조선 사회의 한 단면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연대와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인 요즘, TV에 비친 캠페인 글귀 하나가 눈에 들어 온다. 일명 ‘사회 백신’ 프로젝트다. 그 프로젝트의 실천 주체 역시 ‘사람’이다. 박제가가 유금을 찾고 그들이 또 이덕무를 찾듯... 우리가 사람을 찾는 것은, 또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를 변화

시키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을 향해 열린 마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연대와 공감’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 백신’이지 않을까 한다. 올해 내 마음은 나와 너를 향해 얼마나 마음을 높이고 키웠는지 성찰해 볼 일이다.



김미령 교수 (자유전공학부)

서석대

잊어서는 안 될 이름들

우리 대학과 가까운 곳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는 41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5월의 광주가 느껴진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전시가 꾸준히 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매일 5시 18분이 되면 5·18 민주광장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으며 상무관과 옛 전남도청을 지날 때면 그 당시를 내가 살아가지 않았음에도 마음속으로 80년 5월의 광주를 자연스럽게 그려보곤 했다. 그리고 나서는 내 마음 한 켠에 오월 정신을 그득히 담아보곤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광주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5월의 광주를 찾고 느낄 수 있다. 그렇게 광주는, 그리고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역사인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남김없이 밝혀지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때 광주의 모습과 당시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 기록하고 표현하며 무던히도 노력해 왔던 것이다.

지난 11월 23일 전두환씨가 사망했다는 뉴스 보도가 쏟아졌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향년 90세로 죽음을 맞이했다.



정상아 기자 jvory9956@naver.com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학살한 주범임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사과조차 없이 그렇게 평생 침묵했다.

그의 사망 당일 또 한 명의 사망자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5·18 유공자 이광영씨의 시신이 저수지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는 1980년 5월 21일, 시민들의 구조 요청을 받고 광주 구시청 사거리에서 백운동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계엄군이 쏜 총에 척추를 맞아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1989년 광주특위 청문회와 각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데 힘쓰며 80년 5월의 광주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5·18 당시 총상을 입은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 이 세상을 떠났다.

전두환씨는 비록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저지른 행동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이광영씨를 비롯한 5.18 유공자분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진상규명을 끝내는 그날까지 80년 5월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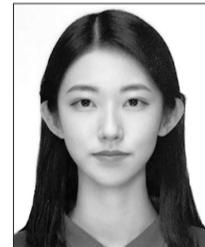
수습일기

말, 잘 하고 싶다면

학교 발표나 회의, 취업 준비를 하다보면 ‘말하기’에 대한 고민이 꼬리표처럼 따라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심지어는 과외를 받기도 한다. 그만큼 말하기는 사회 전반에 녹아들어있는, 불가피한 소통의 단계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일화를 언급하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한다.

한 교양수업에서 교수님이 학우들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다. 정적은 꽤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 질문을 반복하며 답을 기다리던 교수님은 결국 답을 듣지 못한 채 수업이 이어갔다. 이따금 교수님의 질문은 이어졌지만, 대답은 결국 적막이거나 학우들의 작은 독백을 교수님이 끌어와 대신 설명하는 식이었다. ‘우리는 말을 잘 하는 것을 바라면서도 왜 수업의 작은 문답조차 연습하려 들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 광경에 특별한 의문을 가진 건 아니다. 나조차 별다른 이유 없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기 능력을 키우겠다고 독서 토론과 대외활동,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평소 모습과는 상반된 태도였다.

그러다 언젠가 같은 교양에서 꼭 답하고 싶은 교수님의 질문을 듣고 손을 들었다. 그런데 순간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답변을



김성하 수습기자 seongha1bb@naver.com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는 실수를 했다. 나름 말하기 연습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문답에서 애를 먹는 내가 의아했다. 그동안 내가 연습해온 말하기와 그때의 문답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당시 문답이 더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내가 처한 ‘상황’이

었다. 보통 독서 토론과 대외활동은 순조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즉각적인 반응과 관심이 오간다. 그러나 수업에서의 문답은 학우들의 침묵을 깨고 나의 답을 교수님께 전달해야 한다. 학우들이 나의 질문이나 대답에 특별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의 무관심은 하나의 압박으로 다가온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장에 확신을 갖고 말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발표와 면접, 회의는 수많은 상황에서 나를 소개하거나 나의 주장을 각인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말하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답이 아닐까 싶다. 무관심에서 관심을 이끌어내는 말하기의 첫 단계는 부끄러움을 없애고 대범함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때로는 수업의 작은 질문들에 흔쾌히 도전하는 것으로 말하기 연습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 설

전두환의 죽음, 피해자들의 마지막 권리마저 빼앗다

1995년 12월 21일에 5·18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혐의'에 대해 전두환을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하여 사형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4월 17일에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에 대선이 치러졌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사이의 혐의에 의해 12월 20일에 대통령 특별사면이 결정되었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12월 22일에 석방되었다.

1980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난 뒤에야 특별법 제정에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해원(解冤)의 길이 열렸고, 1997년 학살 책임자들이 투옥된 것은 정의의 실현처럼 보였으며, 피해자들의 상징이자 정치적 대변자인 김대중

후보가 같은 해 연말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극적인 절정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나흘 만에 학살의 주범들은 세상에 나오게 된다. 이 모든 일이 너무도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났다. 심판과 용서가 거의 동시였다. 21세기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는 전두환의 끔찍한 범죄를 배우면서도 그가 당당히 여생을 살고 있는 현실 앞에서 큰 혼란을 느껴야 했을 것이다.

왜 전두환은 사면됐는가. 김대중 당선자의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결단은 그의 오랜 도덕적·종교적 신념의 실천이었다. 노명환의 논문 '김대중 화해 사상의 보편성과 특수성'(2020)이 치밀하게 다루고 있는 대로, 김대중의 '화해 사상'은 기독교의 용서 관념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며 다른 누구를 심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일 뿐이라는 믿음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납치 살해될 뻔했을 때에도 그는 관련자를 용서했고, 1980년 당시 사형에 처해질 뻔했을 때 자신이 죽더라도 나중에 정치보복을 하지 말라고 동지들에게 부탁했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경지의 행위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평범한 인간에게 이 선택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학살 범죄자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의 화해 사상은 참회의 대가로 용서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범죄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 처벌을 완수하는 것이 세상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반박이 제기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혼자 용서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것은 상징적 행위였으므로 '혼자 용서한' 일은 물론 아니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 용서와 화해에 동

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윤리적 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쟁점들은 역사의 해석과 평가에 맡겨졌고, 그로부터 20여년이 흘렀다. 전두환은 죽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용서를 누리며 살았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 이후에도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는 일이었다. 그가 진상을 밝히고 참회했다면 피해자들은 그를 용서할 용기를 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피해자들의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그 용서가 피해자들 자신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는 피해자모란 살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두환은 그 기회마저 빼앗고 말았다.

데스크에서

사전적 의미의 양성평등에 충실할 수 있다면

지난달 15일 한 빌라에서 3층에 거주하는 부부와 자녀가 흥기에 급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층에 사는 이웃이 중간소음 등의 이유로 아래층 주민들에게 흥기를 휘두른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이 그에 대처하지 않고 남성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층으로 함급히 이동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된 바 있다.

이 글을 작성하며 '여경 무용론, 언론이 공범이다'라는 기사를 읽었다. 한편에서 보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도망친 여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오는데, 그 누가 이 이슈에 관심 없을 수 있겠나. 도망에 '성별'이 결정적이었을까. 그보다는 순경이라는 점이 더 큰 원인이었다. 여자니까 도망쳤다고 말하며 조롱하는 것은 또 다른 여성혐오에 불과하다. 오히려 왜 순경이 꼭 여성이어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어떨까?

제도적 차별 때문에 고용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소수자를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정책을 펼쳐 온 것은 인권 선진국들의 공통된 역사다. 경찰의 임무 중에도 여성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율'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질'도 중요하게 간주해야 할 것이다.

여경이 무릎을 땅에 붙이고 팔굽혀펴기 등의 체력 검증을 한다는 사실은 SNS에 널리 퍼져 누군가의 염려를, 다른 누군가의 조롱을 사고 있다. 다 남성만 뽑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 중에서도 체력이 뛰어나고 직업적 소명 의식이 투철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양성평등이란 무엇일까. 직업 특성에 상관없이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직책을 맡는 것? 사전적 의미는 뉘앙스가 다르다. '남녀의 성에 의한 법률적·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전적 의미의 양성평등이 지켜지고 있는가.

얼마 전 영화진흥위원회가 도입한 '양성평등가산점' 제도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작가가 여성인 경우 2점,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 여성인 경우 3점의 양성평등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한다. 지난 공모전에서는 상 15개 가운데 11개가 여성에게 주어졌던 것이 모두 이 가산점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제로 여성 지원자의 역량이 더 뛰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기계적인 가산점 제도가 오히려 이 결과를 비판하고 여성 창작자들의 역량을 평가절하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양성평등의 사전적 의미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여성혐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등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말이다.



김성우 편집국장
seongwoo55921@chosun.kr




LINC+ 동계계절학기 취업역량강화교육



모집일정	모집대상	교육장소	의무사항
21.12.08(수) 17:00까지	LINC+참여학과 재학생 분야별 40명 (선착순)	교외 및 교내 강의실 <small>* 강의실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small>	자격 시험 응시 (응시로 개인 부담)
교육분야 (2 중 택 1)	교육일정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
AUTO CAD - 2급 (4주) <small>* 오전/오후반 중 택 1</small> CATIA - 중급 (3주) <small>* 2분반</small>	21.12.27(월) ~ 22.01.31(월) CATIA 1분반: 12월 27일~ 2분반: 1월 중순 <small>* 단, 교육일정은 교육기관 입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small>	조선대학교 LINC+ 사업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2021.12.10(금) 15:00 SMS로 안내

이번 겨울방학에 뭐해? 🤔

내키 보낸 pm 3:00

동계계절학기 취업역량강화교육 이수하고 자격증 따러 가자! 🤖

조선대학교 LINC+ 사업단 내키 보낸 pm 3:10

문의 | 062-230-7974
nslev2207@chosun.ac.kr
LINC+ 사업단 취업교육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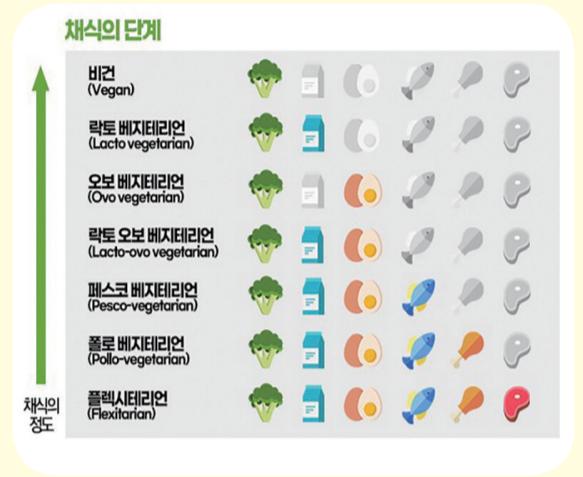
1일 1끼 비건식 체험하기



▲〈글라시에 흥〉 다크 생초콜릿과 파인애플 망고 소르베



▲〈쏘웰리스〉 내부 모습



▲(출처: 인터비즈)

비건에 관심을 갖다

나는 고기를 정말 좋아한다. 하루 한 끼는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하며 돼지, 소, 닭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채소도 싫어해서 나는 채식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변에 채식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 동물 가죽을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가 많아지면서 올해 초부터 채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비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비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건인들이 채식을 강요하고 잔인한 유통 과정을 강조하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하거나 까다롭게 음식을 고르고 귀찮게 비건 옵션을 요구할 것 같다는 선입견들이었다. 또 채소를 기반으로 한 비건식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기에 부족하고 일반식보다 맛이 밍밍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미디어나 책을 통해 배우는 비건에서 벗어나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서 광주에 있는 비건 식당을 찾기 시작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아직 광주에는 비건 음식점이 많이 없다는 것이었다. 내 위치 근처의 비건 식당을 찾아주는 앱도 있고 SNS 해시태그를 통해 홍보하는 단체도 생기면서 비건 식당을 찾는 것은 예전보다 쉬워졌지만, 아직도 광주는 비건 불모지다.

비건 불모지 광주에서, 우리 대학 근처의 비건 식당 두 곳을 찾아 직접 체험해보고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비건 베이커리 〈쏘웰리스〉 사장님을 만나다

우리 대학 후문을 나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비건 빵집 〈쏘웰리스〉는 정제 밀가루, 정제 설탕, 우유, 버터, 계란, 첨가물, 방부제, 색소를 쓰지 않는다. 우유와 계란 없이 샌드위치와 빵을 만드는데 일반 빵집에서 파는 빵과

맛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신기했다. 빵과 곁들일 음료 수도 우유 대신 두유를 파는 점도 눈여겨볼 만했다. 쿠키부터 브라우니까지, 디저트는 물론이고 식사 대용 샌드위치까지 접할 수 있으니 비건에 관심을 갖게 된 학우라면 꼭 방문하길 추천하고 싶다.

비건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

= 다이어트나 운동 때문에 채식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채식주의자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릴 때부터 고기나 계란을 좋아하지 않고 생선만 취급했던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식하고 있었구나, 그럼 생선도 안 먹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더 관심이 생겼다.

사업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굳이 소비자 층이 좁은 비건 베이커리를 고집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 아무래도 광주다 보니 유행에 비해 찾는 인원이 적은 거지, 서울이나 경기도권은 줄 서서 먹는 사람들도 많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전남에 비건 베이커리가 많이 없어서 나누나 여수에서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 비건이라서가 아니라 환경이나 동물을 위해 하루에 한 끼는 비건식을 실천하시기 위해 지금도 환경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비건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비건 디저트나 음식을 많이 찾아주시는 광주도 속도는 늦지만 열풍이 내려오다 보면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비건에 관심은 있지만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 단백질을 육식이 아닌 병아리콩, 두부로 채울 수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균형 있게 식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신선한 재료나 가공하지 않은 재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굳이 비건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비건이라고 얘기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완벽하게 모든 걸 배제하고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볍게 하루에 한 번 비건식을 먹으면서 동물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저트나 빵을 먼저 드셔보시고 천천히 고기 섭취량을 줄여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비건 아이스크림 〈글라시에 흥〉 사장님을 만나다

우리 대학 20분 거리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글라시에

흥〉은 비건인과 비건인이 아닌 사람도 함께 즐길 수 있게 비건 메뉴 3개를 포함해 10개의 메뉴를 판매한다. 비건 아이스크림은 우유와 생크림, 탈지분유를 쓰지 않고 과일 혹은 초콜릿만 사용해서 만든다. 저렴한 가격에 환경을 생각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꼭 한 번쯤은 방문하길 추천한다.

비건 아이스크림은 생소한데 가게를 열게 된 계기는?

= 처음에는 우유 알레르기 때문에 일반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다. 유당불내증을 포함한 비건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찾아주셔서 비건 아이스크림에 관심을 갖게 됐다.

비건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 10개의 메뉴 중 비건 메뉴는 3~4개다. 우유는 소화하기 힘들고 성인이 우유를 먹어서 좋을 게 없다. 그런데 소를 키우는 목적이 단순히 우유를 얻기 위해, 고기를 먹기 위해, 오직 사람 때문에 키우는 거라면 줄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비건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 비건 전문점으로 바꾸면 장사가 안된다.

또 비건과 탄소 절감의 문제가 밀접하기에 손님들이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 스푼, 종이컵, 포장 용기, 심지어 꿀까지 빼달라고 요구하다 보니 불편할 때가 있다. 탄소 절감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종이컵 사용을 한순간에 중지하는 것은 어렵다. 비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은데 현재의 여건보다 너무 앞서 나가서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아쉽다.

비건식을 실천하면서

채식은 이제 동물 인권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문제다. 대구에서만 재배되던 사과가 지구 온도 상승으로 강원도에서 재배되고 이상 기후로 작년 서울은 4월까지 눈이 왔다. 동물을 위해서가 어렵다면 환경을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다.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끼를 비건식으로 먹는 것은 분명 환경에 큰 도움이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줄여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대문화상 단편소설 부문 '당선작'

신문에 게재되지 않은 수상작들은 조대신문 홈페이지(<https://www3.chosun.ac.kr/chnew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둥이자리



홍지형
(문예창작·3)

집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7시 반이 훌쩍 넘어 있었다. 나는 가방과 코트를 벗고 부엌 찬장에서 컵라면을 꺼냈다. 이렇게 식사를 때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저녁 식사는 반드시 8시 전에 끝나야 했다. 언젠가 통화에서 해주는 그 정도면 강박이라고 한숨을 쉬었지만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러냐고 응수했었다. 아침 7시 기상, 아침을 먹고 외출 준비를 한 뒤 8시경 학교로 출강한다. 강의가 없는 날에는 근처 도서관이나 카페로 가서 연구 자료들을 정리하거나 강의 준비를 한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운동 삼아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한다. 집으로 돌아오면 7시가 된다. 회식이 있는 날이나 야간 강의가 있는 학기면 어쩔 수 없지만, 대체로는 이렇다. 고작 이 정도가 강박이라면 모든 사람이 전부 강박증 환자일 것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지난 10여년간 나는 그 규칙을 어긴 적이 없었다.

개수대에 다 먹은 컵라면을 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켠에 위치한 4단짜리 서랍장의 첫 번째 칸을 열어 속옷을 꺼냈다. 낡은 철제 서랍은 원래는 오피스텔용이었다. 대학원 선배인 한이 집 정리를 하면서 버린 걸 내가 가져온 거였는데, 의외로 유용했다. 두 번째 칸에는 양말과 티셔츠를, 세 번째 생리대와 탐폰을 넣어두었다. 눈길에 네 번째 칸에서 멈추었다. 그 안에는 얼마 전 분가에서 가져온 것들을 보관했다. 부모님은 드디어 부산 분가를 정리하신다고 했고, 나는 오랜만에 얼굴도 비출 겸 가서 도와드렸다. 사실 내가 갔을 때는 거의 다 치워진 상태라 나와 오빠의 물건밖에는 정리할 것이 없었다. 부모님이 그걸 치우시는 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익숙한 표지의 낡은 책을 발견했다. '어린이를 위한 365일 별자리'. 밤하늘 사진 표지에 닳아가는 금박 글씨로 쓰여 있었다. 아연함에 한숨이 나왔다. 이 책이 아직까지 분가에 남아 있으리라는 생각하지 못했다. 책장을 펼치자 검은 종이 문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던 별자리 지도였는데 접힌 부분이 하얗게 닳아 너털거렸다. 뿌연게 흐려져 가던 기억들이 일순 선명해졌다.

결국 나는 그것들을 모두 들고 와 네 번째 서랍에 넣고 잠갔다. 오래도록 그 서랍을 열어볼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그 책을 처음 샀던 건 오빠와 내가 일곱살일 무렵 겨울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지인

의 초대로 온 가족이 산청으로 가던 길이었다. 휴게소 진열대에 놓여 있던 책의 표지 디자인은 어린 내 눈을 사로잡았다. "저 책 같이 읽자." 내가 조르자 오빠가 진열대에 있던 책들 중 가장 깨끗한 걸 들고 왔다. 아버지는 계산대 위에 그 책을 올려놓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오빠와 쌍둥이라는 사실에 어떤 거부감도 없었다. "쌍둥이여도 1분 일찍 태어났으니까." 일찍부터 부모님은 오빠라는 호칭을 가르쳤고, 나는 별생각 없이 거기에 따랐다. 그 말이 입에 붙어버린 나머지, 나중에 오빠를 오빠로 부르기 싫어하게 되었을 때는 난감했다. 그래서 아예 부르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어머니는 그날 우리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과시라고 하려는 듯 세트에 맞춘 생활한복을 입혔다. 나는 보라색이었고, 오빠는 소라색이었다. 산장에 미리 도착해 있었던 아버지의 다른 친구분들은 우리를 보곤 신기해했다. 처음 보는데도 머리에 손을 올려놓는 손길들이 당황스러운 한편으로 낯설었다.

우리 또래 아이들도 몇 명 있었는데 전부 남자애들이었다. 어머니는 나와 놀아줄 언니나 여자애들이 없다고 미안한 듯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다. 날씨가 너무 추웠고, 새 책을 어서 펴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오빠는 남자애들이랑 같이 놀고 싶다고 했다. 내가 꼭 가야 하냐고 물었지만 오빠는 이미 남자애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간 뒤였다.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어머니도 다른 아주머니들과 율무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책을 펼친 건 나 혼자였다. 입술을 내밀고 책장을 넘기고 있는데, 바깥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창밖을 내다보자 오빠의 모습이 보였다. 오리털 점퍼에 고깔모자를 꼭 눌러쓴 채 눈덩이를 던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신나 보여 나도 모르게 심술이 났다. 너는 내 쌍둥이 오빠인데, 나와 같이 왔는데. 안고 있던 베개를 집어던졌다.

"보영이네요?" 그때 외벽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얇아서인지 꽤 또렷하게 들렸다. "아까 슬쩍 들여다보니까 책 읽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깔깔 웃음소리. "세상에, 쌍둥이가 성격이 정말 정 반대네요. 규영이는 저렇게 막 굴러다니는데, "나한테도 책 읽게 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규영 엄마. 우리 애한테도 좀 써먹어 보게."

나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닌데. 오빠도 책을 좋아하는데. 원래는 같이 읽는

데, 오늘날 아닐 뿐인데……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다.

이불을 들추는 손길에 잠에서 깨어났다. "책 어디 있어?" 오빠가 이불자락을 뒤집었다. 옷에서 한겨울 겨울바람 냄새가 풍겼다. 오빠가 책을 찾아냈고, 나는 투덜거렸다. "먼저 읽지 마." 옆으로 파고드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빠는 책을 펼쳤다. 동그란 밤하늘 사진 아래 별자리 모양의 은색 글씨가 눈을 사로잡았다. '제1장, 별자리의 탄생' 어딘지 모르게 장중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드는 말이었다. 오빠와 나는 책을 읽어내려갔다. 자기를 '켄타우로스'라고 소개한 이야기꾼이 별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별자리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이들은 고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별들을 기억하고 외우기 위해 별들을 선으로 잇고 자기네 신들과 영웅들의 이름을 붙였다. 옛날 사람들은 그 별들을 성좌라고 부르며 제사를 지내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성좌가 뭐지?" 오빠가 고개를 가웃거렸다. 나는 모른다고 대답하기는 싫어서 입을 다물고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렸다. 아까 오빠가 어울려 놀았던 남자애들 중 하나였다. 오빠는 벌떡 일어서서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열린 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몇 마디 말이 오가더니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문이 닫히고 오빠는 곧 뒤돌아섰다. 즐거워 보이는 얼굴이었다. 뺨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투명한 얼굴 아래서부터 빛이 차오르는 듯했다. 나는 순간, 심장에 서늘한 가뭄날이 닿는 기분을 느꼈다. 난생처음 겪는 느낌이었으나조차도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 남자애가 뭐라고 했느냐고 아무렇지 않은 투로 물었다. 오빠가 나를 쳐다봤는데, 잠시였지만 귀찮아하는 눈빛이었다. 곧바로 같이 나가서 놀자고 수습하듯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내저었다. 결국 오빠 혼자 다시 밖으로 나갔고, 곧이어 즐거운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말소리들이 들려왔다. 왜인지 나 혼자 이 방에 남아 모두가 나를 잊어버린 기분이 들었다. 심장에 아까 그 가뭄날이 다시 와 닿았다.

그래, 오빠는 그랬다. 잘생긴 외모나 예쁘게 휘어지는 눈웃음이나 씩씩한 말투가 아니더라도, 내게는 없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피부 아래서부터 환히 올라오던 빛 같은 것들. 나는 어쩌면 그때 그 빛을 앞으로도 수도 없이 보게 될 테고, 내 심장을 쓸고 갔던 그 차가운 가뭄날은 계속 나를 따라다니리라는 걸 예감

했는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두 달 뒤 해가 바뀌었고 오빠와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반에 배정되었다. 어머니는 난생처음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걱정했지만 오빠나 나나 둘 다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학교 시간이 되면 나란히 할머니 집으로 향할 터였다.

할머니는 만화영화를 보기 전 우리에게 수학 문제집을 10쪽씩 풀게 했다. "똑똑한 아이가 되려면 미리미리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치고 문제집 검사는 잘 하지 않으셨다. 나는 연습장에 낙서를 하거나 책 귀퉁이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반면에 오빠는 펍 진지했다. 찡그린 얼굴로 문제집에 코를 박고 곱셈과 나눗셈을 풀다가도 내가 노닥거리면 문제 좀 풀자며 짜증을 냈다. 함께 별자리 책을 들여다보고, 서로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보겠다며 싸우는 일상은 그리 변한 게 없었지만, 오빠가 그럴 때마다 내가 방해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동시에 오빠가 낯설었다.

우리가 바이올린을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다. 한창 악기 교육 열풍이 불 때였고 어머니도 거기 휩쓸린 사람 중 하나였다. 송선생님은 그렇게 건너건너 아는 지인의 소개로 우리 집에 바이올린 교사로 오게 되었다. 그녀가 처음 우리 집에 오던 날, 어머니는 현관 앞에 오빠와 나를 나란히 세워두고 뒤에서 있었다. 송선생님의 검은 구두굽이 또 각또각 소리를 내며 현관 안으로 들어왔다. 어깨에 올려진 어머니의 손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너희들이 그 쌍둥이구나."

그녀가 살포시 웃으면서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듣기 좋았다. 검은 블라우스 차림에 등 뒤로 바이올린을 메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묶여 뒤로 넘기고 있었다. 별생각 없어 보이는 오빠와는 달리 나는 그녀가 너무 우아하고 예쁘다고 생각했다.

얼마 안 있어 어머니는 할머니가 우리에게 수학 문제집을 풀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어릴 때는 놀기만 해도 바쁘다고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이왕에 시작한 거 제대로 해야 한다며 수학 과외를 해줄 선생님까지 모셔왔다. 우리가 쌍둥이여서 같은 연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업비 절약은 덤으로) 수업을 같이 듣게 했다. 물론 어머니는 그게 큰 실수였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오빠는 세 자리, 네 자릿수 곱셈과 나

늦센은 물론 대부분까지 척척 해냈고, 수학 선생님은 놀라워했다. 오빠에겐 할머니 집에서 모두 풀어본 문제였을지 몰라도 나에게서는 아니었다. 진도는 어느새 벌어졌고,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쫓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가장 최악은, 한 달에 한 번 있던 쪽지시험이었다. 오빠는 항상 먼저 끝내고 나를 기다렸다. 시간은 흐르고 오빠와 선생님은 기다리고 있고. 그게 얼마나 미칠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선생님은 공식들을 잘 외우고 있나 체크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렇게 내 실력을 확인받고 싶지는 않았다. 오빠는 나보다 더 머리가 좋았고 또 수학 문제 푸는 걸 좋아했다. “고민 끝에 정답이 나오는 게 얼마나 짜릿한 기분인데.” 언젠가 내 푸념에 오빠가 했던 대답이었다. 그때 인정했어야 했는데, 오빠가 다 풀어가려고 할 때마다 다 풀지 말라며 연필로 팔을 찌르고 심술을 부렸다. 오빠는 언제나 이리저리 말라고 짜증스럽게 말하기만 했지, 언제나 덤덤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래서 더 알미웠고 보기가 싫었다. 가장 난처해하셨던 건 수학 선생님이었다. 순하고 착한 분이였다. 나를 달랜답시고 했던 이야기들만 아니었다면.

너는 여자에잖니. 남자에들이 원래 이런 것들을 더 잘 하는 법이야. 네가 규영이보다 더 잘하는 게 분명 있을 거다. 다만,

대꾸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자기가 한 말 덕분에 진정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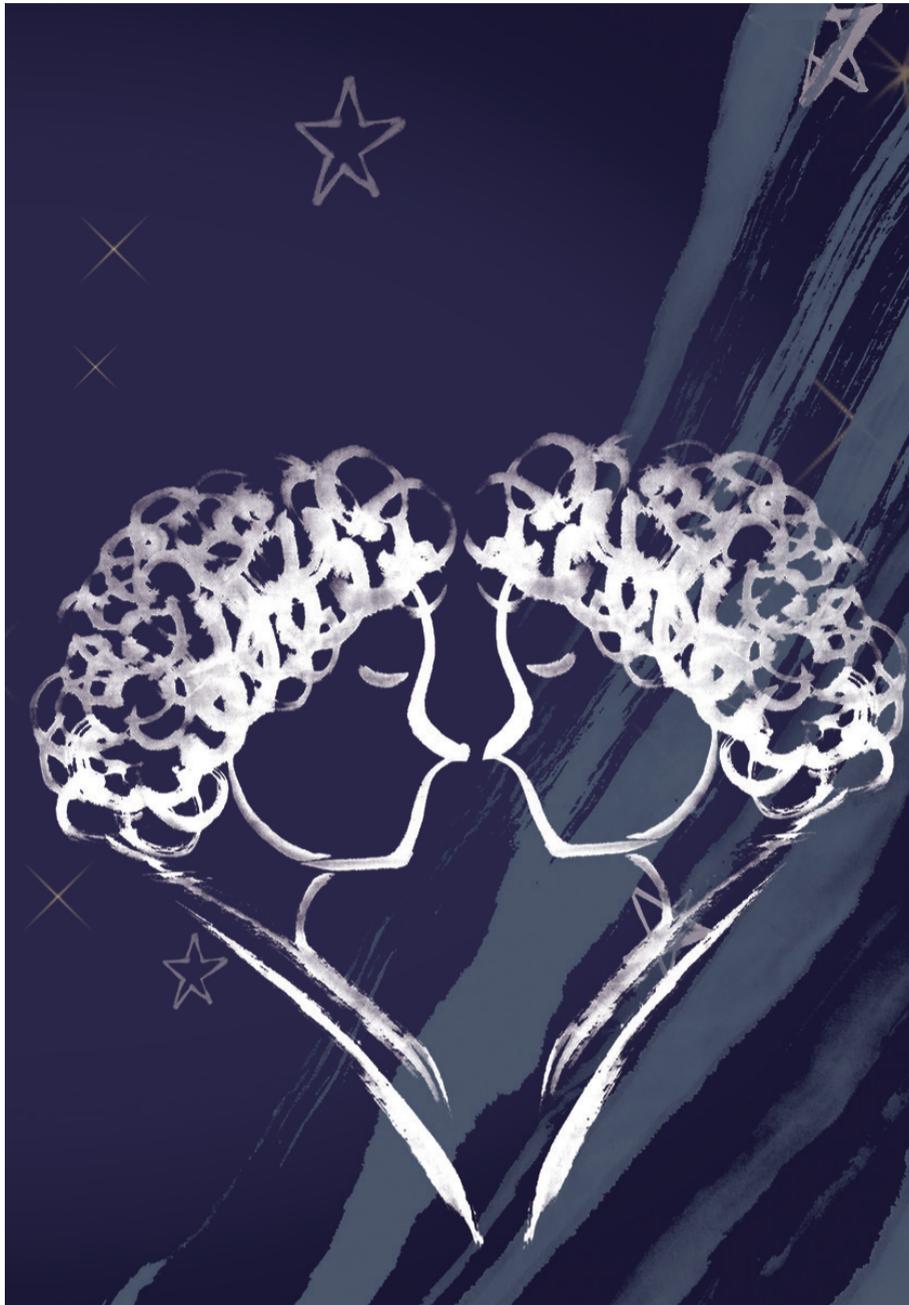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인 법이야. 그러니까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규영이는 수학을 잘하지만 너도 책도 많이 읽잖니.”

수십 번도 더 들어온 이야기.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챙기면서 살아라. 너희는 형제니까. 솔직히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 말을 유독 많이 들었던 것도 있을 것이다.

이제 함께 별자리 책을 들여다보고 성운의 이름을 외우던 시절은 지나가버렸다.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버려서 나도 아주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더 이상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나는 송선생님에게 반해 있었다. 어린 여자애들이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느끼는 사랑 같은 거였다. 그녀는 웃을 아주 잘 입었고,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고,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했고, 나는 그게 좋았다. 쉬는 시간마다 송선생님은 자신이 차고 온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걸 허락해주었다. 그녀의 칭찬이나 미소를 얻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다. 바이올린을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연습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음계 연습은 지루했고 손가락도 쉽게 아파서 의욕은 금세 사라져곤 했다.

바이올린 교습은 두 사람 이상 받는 건 무리였기에 따로 수업 받았지만 서로의 수준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다. 깔끔하고 풍부한 선율이 방문을 뚫고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고 답답해져왔다. 오빠는 나보다 음감까지 뛰어났다. 그 연주를 들 때마다 바이올린을 배우는 게 싫어졌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송선생님과 어머니가 식탁에 마주본 채 앉아 있었다. “보영아, 잠시만 기다려줄래?” 송선생님이 내게 미소를 지으며 부탁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두런거리는 말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알아듣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궁금했기에 저녁 식탁을 차리면서 어머니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봄동 무침을 담으면서 대답했다. “아, 너희 오빠 악기 바꾸는 문제 때문에. 규영이 실력이면 더 좋은 악기가 맞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

잠깐이었지만 그 서늘한 가윗날이 가슴을 아주 강하게 베고 지나갔다.

“오 진짜로요? 오빠만?”

“그래.”

그러면 송선생님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말했는데요? 그 질문이 치고 올라왔지만 어금니를 짹 깨물었다. 분했지만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다. 방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자 온몸이 부르르 떨려왔다. 이걸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오빠는 키가 부쩍 커졌다. 살이 빠지고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남자다운 골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걸음으로 티내지는 않아도 어머니는 오빠를 은근히 자랑스러워했다. 쉬는 시간마다 여자애들이 오빠를 두고 잘생겼다고 말하는 것도 몇 번 들었다.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이었기에 모를 수가 없었다. 적어도 그때 그 학년에서 오빠와 ‘규영이 쌍둥이 여동생’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여자애들은 내가 오빠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초콜릿이나 편지 같

은 것들을 맡겼고, 선생님들, 선배들은 다 하나같이 신기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네가 그 규영이 쌍둥이 여자애구나.” 그래도 그 안규영의 동생이고 무려 쌍둥이니까, 어딘가 특별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바라보던 눈들. 그들은 어수룩하고 소심한 내 행동에 곧 실망감을 내비치고 관심을 돌려버렸고, 나는 빠르게 그런 시선들에 익숙해져갔다. 오빠는 특목고를 목표로 하던 우등생이었고, 나는 평범한 책벌레였다. 가끔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타올 때도 있었지만 오빠가 내미는 성적표 앞에서는 구겨버리고 싶지만 했다.

갈수록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수업 때마다 혹시라도 선생님이 나를 지명하지는 않을까 불안했다. 시험 시간에는 더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손가락에 머리카락이 감겨있었고, 책상 아래 뻗힌 머리카락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원형탈모 진단을 받고서야 그 버릇을 고칠 수 있었다. 한밤중에 이유 없이 울다가 깨는 일이 잦아졌다. 부모님은 그런 나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흐느끼고 있을 때마다 등을 쓸어내려주는 손길은 따뜻했지만, “성적 그게 뭐 대수라고. 너도 뭐든 잘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은 내가 그 말에 더 숨막혀 한다는 걸 모르셨다. 하지만 그게 부모님의 잘못은 아니었다. 나는 이미 성적이 아니어도 모든 것을 오빠와 비교하며 속 끓이는 데 익숙했다. 나는 좋아하는 게 아니면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파고들지를 못하는 반면 오빠는 계획을 세우는 데 익숙한 아이였다. 몇 시에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집은 몇 쪽을 풀고, 바이올린 연습은 언제. 시간도 에너지도 무엇 하나 낭비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 기분이 상하면 방에 틀어박혀 몇 시간이고 우는 나와는 분명히 달랐다. 그렇다고 오빠가 공부에만 신경 쓰는 무심한 아들이나 형제였나면 그건 또 아니었다. 오빠는 매년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기억해 놓았다가 화환을 준비했고, 심부름을 갔다 올 때면 내 몫의 푸딩을 절대 잊지 않았다.

오빠에겐 죄가 없었지만 당시의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오빠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말고 이 울분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오로지 그 생각만이 들었다. 네가 내 형제만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쌍둥이만 아니었더라면, 아니, 너나 나 둘 중 하나만 태어났더라면.

고등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던 건 그래서였다. 다른 학교로 가더라도 성적은 같은 날에 나올 테니까. 오빠와 나란히 성적표를 주는 짓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은 그런 걸로 눈치를 주는 분들이 아니었지만 내가 견디기 힘들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내가 완강하게 나오자 대학에는 간다는 조건으로 결국 허락하셨다. 오히려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야 애가 공부를 제대로 하겠냐고 했던 건 오빠였다. “그건 도망치는 거야.” 어느 날 충전기를 빌려주다가 오빠와 눈이 마주쳤을 날 경멸스럽게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걸음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게 실감이 들었다.

한편 나는 내 삶에서 오빠의 흔적을 몰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바이올린 수업을 그만두고 수학은 다른 선생님들을 알아보았다. 도자기 공방에 연락해서 주말마다 다니기 시작했고, 마을 자치 센터의 고전문학 강독 스터디에도 들어갔다. 거기 선생님은 내가 텍스트 독해 능력이 뛰어나다면서 서양 철학사 읽기 모임도 권유했다. 난생처음으로 오빠와 상관없이 잘한다는 얘기를 들은 셈이었다. 아주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막연하게나마 역사와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서고 나니까 수능 공부도 견딜 만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오빠와 나를 비교하는 시선들이 사라진 것이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명절 때마다 나에게 쏘이는 친척들의 눈길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아주 쌍둥이가 두 분야를 다 하네. 한쪽은 이과, 한쪽은 문과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는 것만 길인가.” 이런 말들로 포장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뻔했다. 그들 입장에서 나는 궤도를 이탈한 행성 같은 존재였을 테니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다. 내가 얻은 것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견딜 만했다.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사이가 좋아졌고, 오빠가 입시 준비로 바빠지면서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들자 상황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오빠도 어이가 없고 억울했으리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오빠는 짜증을 내며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 이상으로 심한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다. 내가 못하는 거면서 왜 나한테 이러냐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을 법한 데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내 행동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는지를 깨닫자마자

자연스럽게 오빠에게 화풀이하고 악을 쓰는 것도 그만하게 되었다. 열등감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이미 벌어진 거리를 어찌할 수도 없었지만 우리 사이에 팽팽하게 흐르던 악감정은 많이 누그러졌다. 나는 서먹하지만 그래도 남남은 아닌, 평범해 보이는 남매가 된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분명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의 단짝 같은 쌍둥이는 아니었다. “쌍둥이는 텔레파시가 통한다는 데 진짜야?” 술자리에서 대학 동기 하나가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웃으면서 너는 네 동생과 텔레파시가 통하냐고 되물었는지.

오빠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도 자세한 건 몰랐다. 오빠가 특별한 행동이나 내게 언질을 준 것도 아니었지만 한집에 살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오빠는 언제나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 씻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고, 내가 불을 끄고 누우면 간혹 벽 너머로 오빠와 부모님의 대화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조용히 속삭이는 그 음성들은 낮았고, 꽤나 진지하게 들렸다. 그걸 들으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왔다. 다음날이면 어머니가 출근하기 전, 그 대화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말해주었다. 전부 오빠가 국어 시험에서 5점 낮은 점수를 받아 속상해한다거나 아버지가 오빠 진로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오빠가 알아서 잘할 텐데, 과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적이야 오빠라면 다시 올릴 수 있을 테고, 대학도 이과 계열로 갈 테니, 나 보다는 선택지가 많을 테니까. 오빠는 오래지 않아 의대로 진로를 잡았다. 나는 조금 놀랐다. 오빠는 수학이나 천체물리학을 공부할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일까. <뉴턴 하이라이트>를 구독하고 구독자 에세이 공모전에서 우승까지 해서 천체망원경을 받았던 오빠였다. 내가 묻자 오빠는 그게 별일이냐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요새는 순수과학만 전공해서는 못 먹고 살아.” 그리고 나에게도 문학 같은 거 말고 경제나 경영으로 진로를 돌리라고 충고했다.

우리가 나란히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부모님 두 분 다 기뻐하셨다. 나는 K대학교 국문학과에, 오빠는 Y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두 대학이 같은 학군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은 투룸을 얻어 주셨다. 이왕에 같이 서울로 가게 된 거 잘됐다, 같이 살면 되지 않겠느냐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였다.

그때, 같이 사는 중에도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씻을 때마다 “보일러 좀 켜줘” 하고 소리치고 “켰어” 하는 그 대답이 아마 가장 많이 나는 대화였을 것이다. 서로의 방에는 열선도 하지 않았고, 먹거나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에는 반드시 치우는 걸 원칙으로 했다. 의대 시간표가 워낙 빡빡해 서로 마주칠 시간도 별로 없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오빠는 주말 토요일마다 밤 산행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이내 오빠가 사들이는 장비를 보고서는 신경을 끄기로 했다.

오빠가 나를 피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그때 새 환경에 온 정신이 팔려있었다. 술자리에 가고 깔깔 웃고, 친구들을 사귀고 약속을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이

새로운 즐거움들을 포기하기는 싫었다. 아무 생각도 거치지 않은 말이 흘러나오고 누군가가 그 말에 웃어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기도 한다는 건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으니까. 내게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말이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진짜? 나 쌍둥이 처음 봐.” 하는 반응들은 여전했다.

1학기 종강 날,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 현대소설강독 가르치는 구 교수인데요.” 그녀는 시간이 된다면 자신의 교수실로 오라고 했다. 그녀의 교수실은 컴퓨터와 책상, 작은 냉장고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책으로 뻗뻗했다. “원하면 가져가서 읽을래요?” 구 교수는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고는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냈다. “선물 받은 건데, 이대로 두면 상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나무가 그려진 종이컵에 와인을 따라 주었다.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걸 받아 마셨다. 술맛이 썼다. 내가 얼굴을 찡그리자, 구 교수가 어떡냐고 물었다. “씨요.” 내 대답에 그녀가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길고 매끄러운 그녀의 검은 머리가 함께 들쭉거렸고, 희미한 머스크향이 맡아졌다. 송선생님의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이 떠올랐다. 아까까지만 해도 긴장한 상태였는데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학생이 쓴 레포트를 읽어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레포트에 관련된 문답으로 시작된 대화는 8시가 훌쩍 넘어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책 취향부터 대화 코드도 묘하게 잘 맞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구 교수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농담에 웃었고, 나는 여자 선배들이 워너비로 여기는 사람이 내게 이렇게 무뎠음이 군다는 사실에 들떴다.

오빠와의 일들도 털어놓는 게 수월해졌다. 괴롭고 자존심 상했던 기억과 일방적으로 열등감을 품고 악의를 보였던 이야기를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었다. 나를 어떻게 볼까, 은근한 경멸을 갖고 나를 바라볼까, 아니면 나를 동정하고 안쓰럽게 여길까. 내가 없을 때 안쭈거리처럼 씹지는 않을까. 내 말에 사람들이 동의해주었으면 했지만 그렇다고 나를 금 간 유리구슬처럼 대해 주기를 바라는 건 또 아니었다. 대학에 와서 사귀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 했지만, 해주에 게라면 괜찮지 않았다. 첫 마디를 꺼냈을 때가 아직도 생생했다. 최대한 이제는 지나가서 괜찮은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덜덜 떨려오는 목소리는 어쩔 수가 없었다. 해주는 내 이야기를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다. “흔한 얘기네.” 그녀는 딱 그 한마디를 하고는 내 등을 톹 쳤다. 더 이상 그런 걸로 속 끓이고 아파하지 마. 내가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내심 기대했던 것들이 부드럽게 흩어졌다. 해주는 내 잔에 남은 맥주를 따랐다. 해주가 내 말을 들어줬어. 나는 입가로 맥주잔을 가져갔다. 톱 쏘는 액체가 목구멍을 따라 내려갔고, 묘한 쾌감이 혈관을 타고 번져나갔다.

그다음부터는 일도 아니었다. 말주변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잘 들어줄 자신은 있었기에,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나는 좋은 상담역이 되어줄 수 있었다. 내 이야기를 슬쩍 하면서 웃어주고, 사람들은 내게 쉽게 호감을 품고 신뢰를 보

내고, 자기 속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내게 기댔다. 뿌듯함과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받는 기분이었다. 그건 일종의 작은 권력이었다.

어쩐 일인지 오빠는 내가 술자리에 간 날이면 항상 나를 데리러 왔다. 처음 오빠가 온 날, 누군가는 내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게 이해가 간다는 얼굴이었고, 누군가는 저런 오빠가 어디 있냐고, 좀 잘하라고 핀잔을 줬다. “근데, 쌍둥이라고?” 우스웠던 건, 하나 같이 내가 저런 사람과 쌍둥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있었다는 거였다. 미끄러지는 정신에도 짜증이 치솟았다. “왜 왔어. 올 필요 없어.” 목소리가 잠겨서 나왔다. 그런데도 오빠는 끄떡하지 않고 계속 나를 데리러 왔다. 처음에 오빠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해하던 해주도 어느새인가 친해져 있었다. 나는 그런 오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 서야 그게 어머니의 당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당부 뒤에 붙었을 말을 나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었다. “일분 차이라도, 너는 오빠잖니.”

그 말을 모르는 척할 수도 있었고,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오빠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외면했던, 쌍둥이고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라는 그 말을 오빠는 외면하지 못한 건지도 몰랐다. 말 잘 듣는다고 부모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줄 리도 없는데.

대별왕과 소별왕 이야기를 알게 된 건 고대구전문학 수업 과제를 하면서였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던 천지왕에게는 총명부인에게서 얻은, 한낱한시에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다. 천지왕은 둘에게 하늘에 둘씩 떠 있던 해와 달을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두 형제는 해와 달에 각각 하나씩 화살을 쏜다. 달의 파편들은 하늘에 흩어져 아름다운 별이 되었고, 천지왕은 기뻐하며 대별왕에게는 이승을, 동생인 소별왕에게는 저승을 맡긴다.

평생을 대별왕과 비교당하며 자라왔던 소별왕은 이승마저 대별왕에게 빼앗기기는 싫었다. 그래서 대별왕에게 내기를 제안한 다음, 온갖 술수를 써서 그에게서 이승왕의 자리를 빼앗는다. 그리하여 공명정대한 대별왕이 다스리는 저승은 정의와 심판의 공간이 되었고, 이기적인 소별왕이 다스리는 이승에는 온갖 부조리와 악이 뒤엉키게 되었다. 나는 파일에 정리하던 대별왕과 소별왕 이야기를 잠깐 바라보다, 노트북을 덮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갔다. 이미 새벽 3시를 지나고 있는 밤하늘은 어두웠다. 민담의 분류 체계에 대해 조사한 뒤, 직접 분류표를 작성해보라는 과제였다. 대별왕과 소별왕 이야기는 어느 자료를 찾아봐도 ‘형제간 경쟁담’으로 분류되었다. 형제간 경쟁담, 형제간 경쟁담…… 맞는 말이었지만 이런 질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왜 형제, 그것도 쌍둥이 형제 이야기에서 항상 한쪽은 사악하거나 비겁한 인간일까. 왜 언제나 구원이나 협력은 다른 쪽에서만 사람들이 찾는 걸까. 왜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읽고 ‘형제간 경쟁담’이라고 획 분류해버리는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속이 뜨끈하게 쓰러왔다.

그때의 나였다면 분명 소별왕 이야기로 소설 한 권은 쓸 수 있었겠지만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대별왕 같은 이가 과연 소별왕의 속임수를 몰랐을까? 욕심 많이 동생이 굽히지 않을 것을 알고, 양보해 줬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양보해주고 참는 쪽은 오빠였다. 어떻게 나를 견뎠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놀라웠지만 오빠의 태도, 그 눈초리는 언제나 나를 할 말이 없게 만들었고, 패배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래서 더 견딜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 일이 일어난 건 4학년 1학기 종강 때였다. 학과 학생 모두가 참여한 술자리에서, 어쩐 일인지 나는 그날따라 술을 좀 많이 마셨고, 누군가가 엄마가 사춘 언니와 자기를 비교한다며 우는소리를 했다. 어지러웠다. 쟁그랑 유리잔들과 병들이 부딪히는 소리, 수저와 그릇이 달그락거리고, 입안에서 음식물 질경대는 소리들이 귓가에 부산스럽다가, 어느 순간 푹 멎었다. 갑자기 이야기를, 오빠와 관련된 무언가를 말해야겠다는 충동이 불쑥 올라왔다. 그 말 들으니까 우리 오빠 새끼 생각나네. 원래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것도 학과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불쑥 튀어나온 말들은 매끄럽게 흘러나왔고, 나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짜릿하다던 오빠 얘기를 하다가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왼쪽에 앉아 있던 해주가 내 어깨를 잡았다. 야, 너 왜 이래. 안에서 무언가가 푹 끊겨 나갔다.

“그거 누가 들어도 자기가 잘났다는 말이잖아! 그걸 충고라고.”

그 순간, 익숙한 악력이 내 팔을 잡고 나를 일으켰다. 나를 잡아당기는 힘에 맥없이 질질 끌려갔다.

술집 거리를 벗어나기 전까지 오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스팔트에는 아직 한 낮의 열기가 가시지 않았고, 술기운 때문인지 피부가 뜨거웠다. 오빠가 내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 내가 어떻게 말했더라, 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지…… 몽롱하게 흐려지던 정신은 오빠가 내 팔을 팽개치자 다시 돌아왔다.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는데도 오빠는 나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몽롱한 시야에도 오빠의 하얀 얼굴이 경멸로 일그러지는 건 선명하게 잡혔다. 심지어 나를 비웃는 듯 보이기가까지 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다시 차가워진 그 얼굴을 보자 그 말이 피부에 와 닿았다. 머리에서 피가 빠져나갔고, 온몸이 수치심으로 떨려왔다. 얼굴이 핫핫하게 타올랐다.

그래, 너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지. 나 정도 되니까 너를 견딘다는 듯한……그런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는 주제에, 언제나 남 앞에서는 싹싹하고 밝은 아이였고, 착한 오빠였고, 부모님 앞에서는 유순한 아이이었다. 언제나 나쁜 년이 되는 건 나였다.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 표면을 찌르자, 나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쌓아놓았던 말들이 터져나왔다. 목이 쉬어 탈진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오빠의 얼굴에서 점점 핏기가 가셨다.

……그날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 뒤 일주일을 어떻게 한집에서 같이 보냈는지도. 분명한 건 오빠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야간산행을 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였다.

부모님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셔서 내가 오빠인 걸 확인했다. 이후의 일들, 안치실 직원이 천을 걷어 오빠의 얼굴과 회색 입술을 보여주고, 오빠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연락을 돌리고, 연락을 받고, 자살이 아닌 실족사 판정을 받고, 친척 어른들과 조문객들에게 슬픈 미소를 지으며 “산 사람은 살아야죠.”라고 말하는 그 과정들은 놀라울 정도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나는 뇌에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멍하게, 그 일들을 기계적으로 했다. 누군가는 내가 생각보다 의젓하다고 말했을 테고, 누군가는 혈육이 죽었는데, 독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다들 왜 오빠가 먼저 가버렸는지를 궁금해했다. 그렇게 흰칠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앞가림 잘할 것 같던 우리 가족의 자랑이, 왜?

오빠가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 우리 사이 마지막 대화가 그날 서로에게 쓰아붙인 말들뿐이라니. 어머니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거친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얹었다. 이 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 친척들의 그림자가 내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너뿐이구나. 아버지가 왔고, 축늘어진 어머니를 부축하려고 했다. 어머니가 몸을 웅송거리며 내 손을 짚 쥐었다. 마다가 하얗게 셀 정도로 짚 쥐었다.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실족사로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오빠의 죽음에 내가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힘들었다.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얼굴을 빚어내며 미끄러지는 정신을 붙잡았다. 엄마, 나 말할 게 있어. 내가 이 말을 하면 엄마는 무슨 얼굴을 할까. 내 손을 그때도 맞잡고 있을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았다.

사람은 어디서든 안정감과 평온을 바라는 존재였고, 나 또한 그랬다. 나는 밥을 먹고 자고 유 교수의 권유로 대학원에 갔고, 석사는 다른 전공으로 따지 않겠느냐는 권유에 민속학을 전공했고, 매주 주말이면 목욕탕에 갔다. 판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버릇을 들였다. 부모님과도 만나는 일이 줄어들었다. 강사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장례식 이후로 집 안을 지배하고 있던 음울하고 적적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싫었다. 그들의 지나친 슬픔을 볼 때마다 그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은 내가 죄인처럼 느껴졌고, 오빠를 대신해 내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오빠 얘기도 어느새 하지 않게 되었다. 세상에 이 정도 이야기는 어디나 널려 있다는 것을 깨달은 탓도 있었지만, 오빠가 있다는 말을 하면 언제나 쌍둥이 이야기가 따라왔고, 신기해하는 어조와 이런저런 질문 끝에는 오빠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뒤따라왔다. 거기까지 가면 상대방은 언제나 난처해했고, 나는 형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말을 돌리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오빠를 잊고 깔깔 웃고 떠드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다.

하지만, 간혹, 하늘이 너무 검어서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만 같은 날이면 오빠와 나를 둘러싼 말들 나를 찾아왔다. 쌍둥이가 완전히 정 반대네. 머리가 쪼개지는 두통에 잠

못 드는 밤이. 한쪽은 이과, 한쪽은 완전 문과 야나. 그런 사람이 가족이면 정말 피곤하긴 하겠다 그 사람들은 오빠와 나를 하나로 묶기만 했고, 우리는 단 한 번도 각자였던 적이 없었고, 나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해가 밝아오는 걸 지켜보았다. 너와 내가 쌍둥이만 아니었더라면, 형제만 아니었더라면, 아니, 쌍둥이 형제라는 이유로 계속 엮고 비교하고 동정하고 신기해하는 사람들만 없었더라면. 나는 오빠를 그리 미워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그냥……내 삶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매일이 비슷비슷하다. 잘만 먹고 싸고 잔다. 주말이면 구교수의 꼬드김에 넘어가 술을 잔에 말아먹고 귀갓길에 비틀거리다가 토한다. 어느 날, 워드 창을 무심코 바라보니 ‘개새끼들’이라고 적혀 있어 화들짝 놀라 지운다.

그리고……논문을 써야 했다. 빌어먹을 논문. 나는 다시 국문학과로 돌아왔다. 구교수가 주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출강하는 와중에 내 학위논문을 위해 책과 연구서를 읽었다. 회식이라도 잡힌 날은 더했다. 5시에 빌라로 들어가다가 공동현관에서 속을 게워내는 바람에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다. 그러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논문은 계속 뒷전이 되었다.

어느 날은 평일인데도 구 교수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꼬드기더니, 2차로 기어이 술집으로 나를 끌고 갔다. 그러고는 논문과 관련된 온갖 명언과 농담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술집은 어두웠고, 공기는 건조했다. 눈이 따끔거렸다. 내가 하품을 참으며 칵테일을 들이켜는데, 그녀가 그 말을 했다.

“나도 박사 논문 쓰는 데만 3년 걸렸어. 요지는 이거야 네가 맺히는 질문에서 시작하면 돼.” 내 표정에서 불신이 보였는지 그녀가 덧붙였다. “소논문을 쓰면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아.”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그때 대별왕과 소별왕 이야기를 떠올렸다.

우리나라에는 남뿔 쌍둥이가 태어나면 생피 붙는다는 말이 있다.

일본 황실에서 쌍둥이는 불운의 상징이었고, 서양에서 쌍둥이는 원래 한 몸이었다가 둘로 갈라졌기에 불완전한 아이들로 간주되었다. 쌍둥이는 언제나 일란성, 이란성, 성별 불분하고 영혼이 이어진 존재였고, 둘로 갈라진 하나였고, 떨어져 있어도 비슷한 운명을 겪거나, 한쪽이 항상 다른 쪽보다 선하거나 사악하거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불행에 빠지거나, 근친상간을 했다. 이런 쌍둥이들이 너무 많았다. 민담에서도,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몇 달 뒤, 민담과 신화 속 형제와 쌍둥이가 어떻게 현대 서사에서도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게 논문에 실린 날, 해주가 전화를 걸어왔다. 축하주를 따자고 했다. 내가 학위논문도 아닌데 무슨 축하주냐고 묻자 해주는 별것 아닌 것에도 축하를 해줘야 복이 들어오는 법이라고 했다. 웬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해주와 술 마신 지도 오래전이라 알겠다 고 대답을 했다.

그 시점에서 해주와 나는 전화나 카톡 말

고는 거의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빠 때 문만은 아니었다. 해주는 졸업 직후 출판사에 취직했고, 초반 몇 년을 아주 바쁘게 보냈다. 동기 중 학부를 졸업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해주는 만날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자기가 계산을 했고,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그게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학생이 뭐가 돈이 있어.” 악의 없는 그 말에 조금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해주는 와인 바의 창가 자리에 앉아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공기에서 차가운 냄새가 났다. 이런 날엔 취해야 하는 거라며 바로 와인을 주문했다. 잔 두 개와 핑거푸드, 얼음통에 든 와인이 세팅되었다. 해주가 술을 따라주었다. 검붉은 색깔이었는데 기묘하게 잔에는 푸른빛이 감돌았다. 몽롱한 조명과 음악이 머리 위를 흘러다녔다. 해주와 나는 며칠 전에도 봤던 것처럼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해주는 얼마 전 장만한 십만원짜리 프라이팬에 연근전을 태워버렸다고 했고, 나는 위로를 건네며 술을 따랐다. 해주는 내게 그 논문 얘기나 해보라며 허리를 쿡 쿡 찔렀다. 한두 잔 들어가자 몸이 느슨하게 풀어졌고, 열이 올랐다. 그날과 비슷한 감각이 올라왔다.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허뿌리가 간질거렸다. 나는 남아 있던 술을 죽들이켰다. “별자리가 왜 생겨났는지 알아?” “뭘 소리야?” 켄타우로스의 말풍선 속에 적혀 있던 문장들을 기억해내려고 애쓰며 내가 말했다. 별들을 외우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별자리라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 별들을 선으로 잇고, 이름을 붙이고, 별자리에 의미가 있을 거라며 점을 치기 시작한 건 인간이라고. 물병자리에 태어난 사람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황소자리와 천칭자리는 궁합이 좋지 않아요. 쌍둥이자리는 전통적으로 우애가 상정한답니다. 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별자리가 되기 위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별자리답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쌍둥이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그들만 없었더라면, 너와 나를 비교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만 없었더라면!

말을 내뱉고 나니 웬지 얼굴이 후끈거렸다. 해주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검지로 핑거푸드 접시의 부스러기들을 찍었다가 다시 털어냈다. 소리가 붕붕 울렸고, 창 너머로 희미하게 건너편 도로의 경적소리가 들려왔다.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어서 말해, 어서.

“이제 곧 9주기지?”

나는 처음에 알아듣지 못해 뭐, 하고 되물었다.

“너희 오빠.” 해주가 나를 응망했다. 목구멍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해주가 잔에 술을 따랐다.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빠가 어느 날 술 취한 나를 업고 가면서 해주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 자신과 닮은 동생은 언제나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님은 울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달려갔고, 항상 부드럽게 타이르는 목소리로 끝났다고. “보영이에게 잘 말해보마. 너도 오늘 일로 보영이한테 너무 모질게 굴지 말렴.” 나는 부모님에게 알리기가 하듯 싸울 때마다 울었고, 질릴 만큼 같은 일들이 반복되었고……. “개는 자기 무기를 알았어.” 오빠의 그 말을 듣고 해주는 안타깝다고 생각했다고. 서로 제

대로 풀 수도 없이 멀어지고 쪼개져버린 우리 남매가 가없었다고 했다. 머리에 열이 확 몰렸고, 아니라고,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해주가 말했다. “너,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속마음을 들려다본 적 있어?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네 죄책감이 뭐랄까, 너무 과해. 이제 털어낼 때도 됐잖아. 너 죄책감을 느껴야만 한다는 강박이라고 있는 것 같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해주가, 해주가 눈치채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 눈길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 안돼, 나는 말 못 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앞이 핑 돌아 발목이 꺾일 뻔했다. 해주는 어딜 가냐고, 당혹스러운 어조로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술집 문을 열고, 복도를 걸어, 밖으로 도망쳤다.

다음날, 해주에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 해주는 자기야말로 눈치 없이 오빠 이야기를 꺼냈다고 불편하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뒤로도 오빠가 했던 말들을 곱씹었다. 해주가 전해준, 그 말들이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거짓말인 건 아니었다. 거짓말이었다면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까지 부끄럽지는 않았겠지. 오빠의 장례식 이후로 내가 느꼈던 생각들과 감정에 순수하게 자책하고 후회하는 마음만 있지는 않았다. 잊을 수 있는 알약을 누군가 건네준다면 나는 마다하지 않고 삼킬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정리하겠다는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뒤였다. 전화 통화로만 연락하다가 삼사 년 만에 얼굴을 본 거였다. 음울한 얼굴 주름까지 서로 닮아버린 전형적인 노부부. 그사이 머리가 잿빛으로 세어버린 건 좀 충격이었다. 본가 집은 가구나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전부 정리된 상태였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깔끔했지만 사람이 사는 집답지 않게 고요하고 서늘했다. 내가 할 일은, 얼마 남지도 않은 오빠와 나의 물건들을 버리는 것밖에 없었다.

저녁은 해물찜이었다. 우리 전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사에만 집중했다. 이렇게나 말이 없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후식으로 어머니가 땅콩과 사과를 내왔고, 그제야 우리는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근황을 이것저것 털어놓으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표정이 좀 밝아지는 게 보였다. 그동안 두 사람을 외면한 게 미안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그래, 잘했어, 잘했어” 하는데, 웬지 스물세 살 때의 그 일을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엄마 나 말할 게 있는데.”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두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말이 끝나자 그 자리를 적요가 채웠다. “그건 실족사였어.”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더 강하게 그러쥐었다. 팽팽한 긴장이 흘렀고 불안한 공기가 넘실거렸다. 옆에서 어머니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메인 목소리로, 어머니는 오빠가 고등학생일 때의 이야기를 꺼내셨다. 그때, 오빠

는 부모님과 매일 같이 식탁을 사이에 두고 연성을 높였다. 진로, 성적, 동아리, 친구들. 어머니는 그때 집안이 많이 어수선했다며, 겁먹었지만 내색 안 해준 나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던 수능 전날, 오빠는 갑자기 그린란드에 1년만 가 있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식탁 위의 도자기 휴지 곱을 오빠에게 던졌다. 어머니가 자지러지고, 오빠는 그저 땅을 노려보기만 했다. 그리고 깨진 잔해들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부모님은 그날 날이 새도록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싸웠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야 했어.” 그냥, 자기를 알아달라는 신호였던 것 같다고. “너는 우리랑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았지만, 규영이는 아니었잖니.”

“그만해, 이제 이 애긴.” 아버지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지나간 일이라고,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목이야말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때 내가 잠들기 직전, 벽 너머에서 조용히 들려오던 대화는 대체 뭐였지. 어머니 말대로 그렇게 싸웠으면 내가 몰랐을 리가 없었다. 충격받은 동시에 한 대 맞은 듯 머리가 맑아졌다. 오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그날 밤, 오빠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렇게 나를 경멸하고 미워했으면서, 어떻게 나를 챙기라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나를 데리러 오고, 나와 한 집에서 했던 생활을 견뎌냈던 걸까. 그렇게 상처를 받고도 착한 아들로 남는 게 더 중

요했던 걸까. 그 무표정한 얼굴 뒤로 겹겹이 쌓인 시간을 도무지 가늠해볼 수 없었던 나머지, 나는 그만 이 모든 것이 끔찍해졌다. 이 집의 고요와 어둠 아래, 우리 가족의 집 아래, 그만큼이나 잘못되고 비틀린 게 도사리고 있었다는 느낌에 두려워졌고, 내 손을 잡은 어머니의 손이 더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별이 생겨난 건 대별왕과 소별왕이 두 개의 달 중 하나를 쏘아서였다. 그 별들을 외우고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은 별들 사이 선을 잇고 신들과 영웅들 이름을 새겨 넣고 숭배했다. 그건 오빠와 나에게도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관계에 온갖 말들을 덧씌우고 선들을 긋고…… 형제, 남매, 쌍둥이. 우리는 그래서 불행했다. 불과 몇 년 전의 나라면 그렇게 말할 것이다.

꿈속에서, 나는 밤하늘 아래 서 있고, 죽던 날의 오빠를 떠올리고 있다. 왜 낮이 아니라 밤에 산을 올랐을까. ……아, 이 하늘 때문이었구나. 옛날이라면 저 선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안다. 지금 가장 확실한 건, 내가 언제까지나 이것들을 기억하리라는 거다. 오빠에게는 언제나 등을 돌리고 내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었고, 나는 그게 내 인생의 최대 수수께끼로 남았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다.

본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다. 씻으러 들어가 물을 졌다. 한참을 지나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낡은 빌라를 욕하며 찬물에 몸을 맡겼다. 밖으로 나와 보일러를 확인하고서야 온수 기능을 틀어두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단편소설-심사평

이번 심사에서 내가 주목한 소설은 정다운의 「해피버스테이」와 홍지형의 「쌍둥이자리」이었다. 정다운의 「해피버스테이」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세대를 초월한 여성들 사이의 느슨한 연대를 보여주는 따뜻한 시선이 좋았지만, 지나치게 소품에 머무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어떤 순간 공유되는 감정에 관해 선불리 해석하거나 해설하지 않은 채 그 순간에 잠시 멈춰선다는 점이 이 작품의 미덕이었지만, 그 순간이 소설적 무게를 획득했다기보다 삽화적인 장면에서 그친다는 점이 아쉬웠다.

홍지형의 「쌍둥이자리」는 응모된 소설들 가운데 가장 소설적 구성에 힘을 기울인 작품이었다.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부모와의 갈등이 다소 성급하게 ‘말로 처리’되어버린 점, 부모의 등장이 단지 결말을 짓기 위해 도식적으로 배

치된 점 등이 아쉬움을 남겼지만, 쌍둥이 오빠에 대해 ‘나’가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들을 과거 회상과 오빠의 죽음 이후인 현재 시점의 교차를 통해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현재 연구자가 된 ‘나’가 “민담과 신화 속 형제와 쌍둥이가 어떻게 현대 서사에서도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쓴다는 설정은 불가피하게 이름과 서사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삶과 예술의 ‘재현의 영역’에 대한 응모자의 깊은 고민이 담겨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의 작품을 기대하도록 만들었다. 당선을 축하하며, 소중한 작품을 보내준 모든 응모자에게 진심으로 응원을 보낸다.

이 소
(조선대 국문과 박사 졸업
문학평론가)

단편소설-수상소감

‘설마 응모작이 한 편뿐이었던 건 아니겠지……’

수상 전화를 받고 나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내는 이 생각이 아주 합리적이라는(?) 결론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의심했던 이유는, 제 소설이 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심사위원께서 ‘상을 받을 만하다’고 뽑아주셨기 때문에 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편으로는 상을 받아서 마음껏 기고만장해지고 싶은 마음과 그러지 말라는 초야자의 으박지르는 목소리.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운이 좋았고요. 제게 소설을 가르쳐주신 이승우 선생님, 제 소설 뽑아주신 이소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철쌤과 조대문화상 관련해서 고생한 모든 분들, 그리고 우렁이에게도 감사.

홍지형
(문예창작·3)

수필-심사평

이제 사람들은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 매체의 발달로 가능해진 이 편리한 세상에서 언제나 타인과 대화를 나누느라 바빠서 말이다. 내가 함께 있기 가장 어색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이상해, 이 방에 나랑 단둘이 있으려니까. 나는 내가 너무 낯설어. 빨리 타인에게로 도망쳐야 해.’ 그런데 나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은 언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에세이는 나 자신과의 대화다. 시는 누구인지 모를 대상을 향한 시인의 고백이고(그래서 시의 독자는 누군가의 말을 엿듣는 느낌을 받는다), 소설은 캐릭터들끼리의 대화라면(그런데 이는 곧 작가가 이 세계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라고 해야 하리라), 에세이는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장르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몸부림의 흔적이 그대로 글이 되는 장르다.

김강의 글은 범례가 될 만한 사례다. 추상적인 감정을 개념적인 표현으로 바꿔 내려는 집요한 노력, 대구(對句) 형식의 문장을 구사하여 글의 전압을 높이는 기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려 몸부림치는 정신의 운동, 이런 것들이 이 글에 있다. 문장들이 들끓는 저 아래 쪽에 구체적인 사건 하나가 분명하게 놓여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말이다.

신형철
(문예창작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수필-수상소감

올해는 많이 걸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가리지 않고 길을 헤맸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연기도 헤맸습니다. 상을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방향 속에서 만난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시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오늘 다시 읽어보니 무서웠습니다. 거칠고 영리한 문장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 문장들은 웬지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자살에 대한 경고’를 읽었고, 시인의 이름을 목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널브러진 저를 안아준 그 시인이 고맙습니다. 혹시 그에게 흥미가 생겼다면 ‘바우리히 중사’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시를 읽을 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를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거만하게 웃는 사람이 되지 않을게요.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네주시는 격려가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짐작하실까요. 상금으로 고마운 사람들에게 밥을 사려고요!

김 강
(문예창작·2)



조대문화상 수필 부문 '당선작'

나를 비우기

(못된 제목이라 생각할 사람들에게)



김 강
(문예창작·2)

내게도 너무 많이 울었던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나는 슬픈 얼굴이 우울할 틈조차 없었던 사람들에게 모욕이 될 거라고 생각해야 했다. 생기를 잃은 눈을 뜨고 걷는 것이 죄가 될 거라는 생각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려고 할 때면, 누군가 머리를 누른 것처럼 어느새 땅을 보고 있었다. 불안하게 앞을 살피는 그 몇 초의 순간을 누구라도 눈여겨봤다면 불쾌해졌을 텐데, 아마 눈길을 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불안해하는 일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내가 쓴 글이 예상보다 좋았다고 말했다. 그들 앞에서 떠들던 내가 얼마나 경박했던 건지,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묻고 싶었다. 잘 다듬어진 문장을 읽어야만, 음악이 흐르는 영상이 눈앞에 지나가야만 그 사람에 대한 무언가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미웠다. 그런 내게 시를 전해준 선생님이 있었다.

자살에 대한 경고

이 충고는 자네를 위한 것이네:
자네가 권총을 쥐고
머리를 겨냥해 방아쇠를 당긴다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교수님들의 훈계를
다시 늘어놓아 볼까?
선한 사람은 드물고
나쁜 사람은 흔하다는 훈계를?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다는
뻔한 소리를 되풀이해야 하겠어?
이 사람아, 자네 시체가 관 속에 들어 있
대도
패주고 말거야.

자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은
아무래도 좋아!
그런 쓸데없는 일은 그냥 내버려두게!
세상이 그렇고 그렇다는 것은
성인식을 올리는 아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

자네 계획은
인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었나?
내일이면 자네는 그런 계획에 대해 비웃
을지도 몰라.
하지만 인류를 개선할 수 있다네.

그래,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들이 강자인 건 맞아.
하지만 풀 죽어 지내지 말게
살아남아서 놈들의 약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나!(에리히 케스트너, 자살에 대한 경
고)

에리히 케스트너는 히틀러 정권에 맞섰
기 때문에, 책들이 불태워졌다. 그는 나치 시
절 왜 다른 작가들처럼 외국으로 떠나지 않
았느냐는 질문에, 모국 사람들이 고통을 받
을 때 함께하는 것이 시인의 일이기 때문이
라고 답했다. 그는 동료들과 써온 글에 대해
미소 지으며 토론하는 소소한 생활을 꿈꿨
지만, 자신의 시대에는 그 평화가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시를 전해준
선생님은, 자신이 너무 힘들어할 때 누군가
보내준 이 시가 한때는 위로가 되었다면서,
이제 내게 전한다고 하셨다. 심오한 시는 아
니니, 너무 무겁지 않게 너무 가볍지도 않게
읽으라며.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대해, 영영
놓쳐버린 문장에 대해 헛된 그리움을 품으
면 안 된다. 스스로를 책찌질하면서 킬킬대
서도 안 되고, 혼자 피해자가 되려 해도 안
된다. 나의 작은 상처를 자랑해도 안 되고,
고개 숙여 걷느라 울며 지나가는 사람을 보
지 못해도 안 된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면, '왜 그렇게 놔두
었어요' 보다는 '고맙습니다' 하고, 그들을
동경하면서도 그들이 동경했던 소소한 생활
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한 영혼을 숭배하
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내게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들을 위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보다는 이 세상 어딘가의 한 조각 부품이 되
어서 그들 같은 사람에게 사소한 친절을 보
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뭔가를 끊임없이 다
짐하던 어두운 밤과, 일어설 수 없는 시간이
라 믿었던 절망이 나를 지나치게 두어야 하
고, 나의 성격과 미래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말들을 데굴데굴 굴려 가며, 울림이 없는
노래들을 지어내지 말아야 하고(에리히 케
스트너, 산문적 여담), 쓰고 싶고 쓸 수 있는
것을 쓴다는 말이 진실인지 의심해야 한다.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하
고, 분노나 눈물보다 환하게 웃는 행위에 끝
없는 이유를 대고 싶었다면 그렇게 하면 된
다. 나는 허무와 무기력을 경계해야 하고, 포
만감과 충족감, 행복이라 생각되는 것들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워

하지 말아야 하고(한수산, 미지의 새),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을 그리워해야 한다. 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잠언과 격언이 나를
빋겨 갈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되고, 그 문장
과 걸어가야 한다. 내가 머문 곳에 남은 악
취를 기억하고, 고향의 기억에 고개를 묻는
것을 감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매일
밤 같은 문장을 다른 의미로 읽는 나의 변덕
과 어수선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들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약간의
안도감이 고개를 든다면, 난 다시 소망을 시
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날에는 날 보며
울어주길 바랐던 사람들이 내게 미소를 보
여줄 수도 있고, 아이들의 웃음이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떠난 사
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자
연스러운 웃음을 짓게 될 수도 있다. 그날에
도 나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라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바뀌는 다짐을 하고 있었지만, 조
금 덜 절박할 것이다.

이 문장들을 써 내려가는 지금도 난 오지
않은 날에 이미 가 있고, 이 글을 보고 또 한
명의 몽상가가 자위를 시작했다며 피식할
사람을 노려보고 있어서, 슬프다. 그래도 이
제는 어리석음을 슬픔으로 감추거나, 나를
향해 안타까운 미소를 짓는 선생님의 얼굴
을 보고 싶지 않다. 나에게 필사적이었던 시
간이 누군가에게는 거의 아무 의미도 없
는 충격에 휩싸이고 싶지도 않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직접 보기 전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 자책하지
말자. 사실 시간이 별로 없다. 찬양도 즐거움
도 필요하지 않고, 계속 적어야 한다. 그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다는 걸, 그들이 어떻게 나
를 변화시켰는지, 그들을 만나게 되면 그 눈
을 어떤 표정으로 봐야 할지 전혀 알 수 없
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 그들을 또 한 번
외롭게 하는 일이다. 난 장례지도사나 구급
요원처럼 필요한 일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태어나서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고 우는 사
람, 그냥 다 엉망이고 사는 게 창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옆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다
가오는 부끄러움의 시간을 가슴에 담아두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선생님이 있고, 난 그분
을 닮고 싶다. 선생님은 당신이 친구가 거의
없다고 하셨지만, 난 사람들이 제정신이였
다면 그분과 친해지고 싶었을 거라고 말씀
드리고 싶었다.

예민한 사람은 무심한 사람의 대담함을
동경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서 아쉽고, 그들의 잔인함도 잘 알아서 가끔
은 누구보다 모진 말을 할 수 있다. 무심한

사람이 말하는 솔직함은 매력적인 것 같지
만, 사실 이기심이 되고, 그래서 예민한 사
람은 누군가에게 말을 꺼낼 수 없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쓰게 된 사람을 보면 매번
먹먹해지고, 그건 파락호를 말하는 것이 아
니다. 파락호는, 눈물로 얼룩진 재산을 탕진
한다. 숙연함 없이 글을 쓰는 사람, 스러진
사람들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은 올라미나 난간 앞에
서 의심과 싸우게 되고, 훗날 의젓해진 자신
을 보며 결국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나는 내가 고통이라 생각했던 것을 버리
는 일이 무심해지는 일 같아서, 변하기를 거
부했는데, 세상에는 선생님이 여럿 있어서
그게 정말 고통이었는지 돌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짐작하게 한다. 그들
은 어린 사람들의 마음을 웬지 알 것 같아
서 단편적인 문장 혹은 침묵만을 건낼 수 있
지만, 어린 사람에게 그 뜻을 알아듣는 일은
너무 고되다.

이 호사스러운 문장들을 다 비우면 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
님을 찾아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영영 닿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조금 가까워졌다
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를 불
편하게 했던 친절함과 단정함 속에 사실 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끝으로, '나를 비우기'가 못된 제목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에게 나는 미안해할 수가 없
다. 그들에게 미안할 수 있을 만큼 느긋해지
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아
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안하다는 말은,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그들에게 잘 있으라
고 말하는 것과 같다. 최근 나는 마음속 어
딘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린 것을 느끼
는데, 슬픔을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이 그것
이다. 매시간,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한다. 슬퍼지면
나는 더 큰 슬픔을 가진 사람들을 본다. 그
런 사람은 많고, 그들이 얘기하는 '살인적인
인내'와 '타인의 시선에 불안해 할 수 있는
사치'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다 보면, 어느
새 소리가 들리고, 호흡도 제자리로 돌아왔
다. 슬픔을 멎게 하는 슬픔이었다. 그러다 보
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군지 궁금
해지기도 했다.



조대문화상 시 부문 '당선작'

장마

물러터진 복숭아
손 안에서 비누처럼 미끄러졌다
그만 놔달라는 표정

버리자. 너무 늦었어.
너 몰래 나는 잼을 만들었다
레몬즙 휘휘 돌려 냉장고 끝까지 밀어 넣으면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되니까

시간의 뚜껑을 덮고

기다려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줄여서
차게 식힌 눈물 같은
잼을 떠먹는 밤
한 입에 손가락 하나, 있는 손가락 다 쓸 때까지
빗줄기가 손목 타고 흐를 때까지

둘둘 말린 그 여름 창문을 쥐고 있다

시시하다 올 여름은
신나는 태풍 한 번이 없다

젖은 후드를 뒤집어쓰고
검은 봉다리 흔들며 뛰어오던 너도

이제 거의 다 먹어간다



이하루
(문예창작·4)



시-심사평

올해 시 부문 공모작들 가운데는 꾸준히 시를 읽고 쓰며 축적한 문학적 기량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빼어난 작품들을 만난 즐거움 뒤로 남은 아쉬움이 있다면 한 명이 낸 여러 편의 작품이 고른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인데, 이는 각자의 언어를 찾아가는 과도기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생각된다.

수상작과 비등하게 견주었던 작품 가운데 이민주의 「어항」은 장마와 바다로 이어지는 물 이미지의 변용과 어항이라는 제한된 세계가 감각적 대비를 이루는 작품이었다. 사고의 밀도가 아쉬기는 했으나 유연하게 언어를 풀어어나가는 힘이 돋보였다. 내면세계를 관통하는 시의 언어를 시도하는 박소영의 작품들도 인상적이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감정이 분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월의 課」는 정제된 표현으로 구체적인 형상을 보여준 작품이다. 채동주의 「푸른 눈, 바이칼 호수」 역시 시적 대상이 지닌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경우이다. 시의 마무리가 성급한 듯한 아쉬움이 들지만 바이칼 호수와 푸른 눈의 이방인을 겹쳐놓은 시적 설정이 탁월한 작품이다.

수상작인 이하루의 「장마」는 긴장감있게 시를 전개해 나가는 역량이 돋보인 작품이다. 감정의 상태를 응시하며 잼을 만들어 먹는 장면으로 풀어낸 이 시의 미덕은 함축적 언어와 비약적 전개를 통해서 세계의 구체적 형상과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라는 장르의 특성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루의 수상을 축하하며 응원과 기대를 담은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시 부문 공모자 모두 시를 통해 자신의 언어를 찾는 기쁨을 발견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장은영
(기초교육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문학평론가)

시-수상소감

졸업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교수님으로 뵈는 적이 있던 장은영 평론가님이 뽑아 주셨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선물은 더 귀해졌습니다.

제가 포기했던 시 「장마」를 맨 앞에 세워주셔서, 고치고 다듬으며 지새운 밤들이 더없이 따뜻한 위안을 받았습니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예창작학과 교수님들께 고맙습니다. 4년 간, 제 몸보다 더 큰 응원 속에서 살았습니다. 훌륭한 어른들께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제 영망진창이었던 이십대 초반을 지지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에도 역시 교수님들이 계시다는 게 더없이 든든합니다.

작년 겨울, 함께 시 쓰자고 손 내밀어주었던 친구들에게 고맙습니다. 시를 함께 쓰는 일은 시 밖에서도 사랑을 논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제가 다름 아닌 이곳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두려움과도 맞서 볼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하루
(문예창작·4)